

#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1992. 10.

徐載鎭(北韓研究室 室長)

金台鎧(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 要 約

## 第 I 章 序 論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의 人性研究를 통해 북한사회의 異質性을 심층 분석하고, 북한사회의 變化를 전망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두 단계의 논리적 추론에 기초한 간접 관찰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단계에서는 演繹的 方法으로 북한주민의 人性類型을 도출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演역적 方法으로 도출한 人性 유형을 北韓小說 및 歸順者들의 證言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일치하는가를 檢證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일차자료는 북한의 소설과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 第 II 章 人性의 概念

人性이란 가치, 태도, 동기, 욕구, 신념 등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個人의 心理 屬性을 의미한다. 그러나 人性은 개인적 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社會的 現象이다.

人性의 형성에 관한 고전적 이론으로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에릭슨(Erik Erikson)의 自我理論, 파슨즈(Talcott Parsons)의 사회화이론, 그리고 블루머(Herbert Blumer) 등으로 대표되는 象徵的 相互作用論(Symbolic Interactionism)이 있다. 이 이론들은 人性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人性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일반이론으로서 가

치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개념을 매우 추상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내용이捨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역사적이다.

이와는 달리, 구체적 사회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보고 사회의 變異에 따라 인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이론들도 있다. 레오나드(Peter Leonard)의 인성에 대한 史的唯物論的 接近,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일본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마아가렛미드(Margaret Mead)의 뉴기니아 원시부족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인성연구의 여러 이론들로부터 우리는 인성의 형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한다. 첫째, 인성은 사회구조가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社會化의 산물인 동시에, 둘째, 인성은 인간의 內的 自律性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형성된다.

이 명제들은 북한주민의 인성연구를 위한 몇가지 구체적 분석 전략을 제시해 준다. 첫째, 북한 사회구조의 특수성을 밝혀내기 위해 ‘臣民社會’라는 理念型을 도입하여 북한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적 시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둘째, 인성은 개인의 심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구체적 특수성이 북한주민의 인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독특한 社會構造的 要因을 분석하려고 한다.

셋째, 비교사회적 분석뿐 아니라 사회내의 集團間 差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내에서도 집단에 따라서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계급, 농민계급, 근로인테리 등 북한사회의 주요 계급들 사이, 그리고 세대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넷째, 북한체제는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사회화 메카니즘과 사회통제의 정도가 강하지만 북한주민의 인성은 사회구조의 囚人으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인간고유의 自律性에 의한 인성의 특성, 즉 인간의 思惟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 第Ⅲ章 北韓住民의 人性研究를 위한 理念型:市民社會 對 臣民社會

#### 1. 市民社會

인류역사에서 대중의 지위가 종속적인 臣民(subject)의 지위에서 자주적인 市民(citizen)의 지위로 변화된 것은 노예제도, 봉건주의, 절대국가 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면서 등장한 경제적, 정치적 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市民社會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법적 신분을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분리하였다. 市民社會에서 개인은 더이상 귀족의 노예도 아니고 봉건영주의 농노도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구속된 臣民이 아니라 정치적 명에서 해방된 市民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이

라 볼 수 있는 노동자계급은 작업장에서는 작업규칙에 복종해야 하지만 퇴근하여 귀가하면 자유로운 市民이다. 市民社會는 개인을 사적 이기주의자와 공적 시민으로 분리시켰다. 봉건사회가 사적영역이 없는 臣民社會라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적영역이 보장된 市民社會이다.

이러한 市民社會論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원리로 수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제3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적인 정치원리로 수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市民社會의 理想型(ideal type)과는 대조적인 사회라는 것이 이 글의 시각이다.

## 2. 臣民社會

臣民社會란 市民社會가 발달되기 이전 단계의 사회다. 臣民社會에서 개인은 경제 외적인 강제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이 없는 종속적인 臣民(subject)인 것이 특징적이다. 臣民社會에서 개인은 영주에 예속된 농노의 신분과 같이 국가권력의 조직에 의하여 직접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臣民社會의 예로서 고대 奴隸制 사회, 중세의 封建制 사회, 舊蘇聯, 舊東歐, 北韓 등 국가사회주의 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절대 군주가 지배하며 개인은 절대군주 앞의 臣下 또는 臣民에 불과하다.

이들 사회에서는 市民社會에 특징적인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

았으며 봉건주의나 사회주의가 특징적이어서 사유재산제, 시장메카니즘, 다원주의적 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다. 이것은 市民社會의 기원이 부르조아 경제의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관점과 일치한다.

이들 사회에서는 대중을 臣民으로 구속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 봉건제하에서는 기독교가 발달했으며 한국의 봉건시대인 조선조에서는 유교가 고도로 발달했으며 臣民社會의 한 유형인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또는 주체사상이 발달해 있다.

스탈린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國家機構의 囚人(captive clientele)에 불과하다. 거기에서는 一黨體制의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이며 국가의 唯一黨이 유일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이 달리 갈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다.

이러한 국가중심주의가 북한에 수용되어 권력의 정당성의 이론적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와 집단이 最高의 善이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북한의 집단주의와 전체주의가 반드시 이러한 이론적 원칙에 근거하여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헤겔과 라살레의 전통을 이어받은 스탈린주의가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사회를 전형적인 臣民社會의 예로 파악한다. 북한사회의 구조적 산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人性은 臣民社會에 전형적인 臣民型 人性일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假說이다.



## 第 IV 章 北韓社會 臣民型 人性形成의 社會構造的 要因

북한의 사회구조적 조건을 전통문화적·역사적 배경, 경제적 토대, 정치적 요인, 사상적 체계, 권력 엘리트의 성격으로 나누어 이들이 북한주민의 인성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다.

### 1. 傳統文化的·歷史的 背景

臣民型 人性을 형성시킨 중요한 요소는 유교문화의 전통과 일제의 '皇國臣民化'의 역사의 잔재이다. 우선 전통적인 儒敎文化가 인성형성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이다. 첫째, 북한사회는 생산력 발전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사회주의체제가 이식된 데다가 체제수립 이후 시민혁명은 물론 시민저항 운동 조차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시대에 보였던 중앙집권력이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관료제의 경직성, 관존민비사상 등이 거의 그대로 잔존해 있다. 실제로 儒敎的 政治文化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와 강력한 이념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에서는 한가족으로서의 사회라는 유기체적 개념이 일반적이다. 治者와 被治者의 관계는 부친과 자녀의 관계로 비유된다.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비유한다든가 온 국민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고 선전한다든가 김일성을 '아버이'로 호칭한다든

가 하는 보기들은 일종의 ‘국가가족주의’ 내지 ‘가족주의적 국가’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전통문화적 토양은 臣民社會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를 ‘어버이 수령’ 김일성의 臣民으로 생각하는 臣民型 人性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북한주민의 신민형 인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으로 일제동안 천황의 臣民으로 살았던 경험의 영향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수탈을 위한 노력동원, 동화를 위한 강제,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측면에서 내용은 다를지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2. 經濟的 土臺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농업협동화 및 개인상공업의 국유화를 통해 경제관리방식을 집단주의적 방식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 집단주의적 방식이란 한마디로 명령형 경제체제를 말한다. 명령형 경제체제하에서 인간은 자율형, 창조형이 아니라 복종형, 묵종형 인성을 가지게 된다. 存在가 意識을 결정한다는 명제와 같이 명령형 경제는 복종형 의식을 가치있는 것으로 사회화하기 마련이다.

둘째, 북한에서는 1958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生産手段의 國有化

가 완료됨으로써 재산과 잉여가치에 대한 개인의 처분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국가소유 경제체제는 국가지배의 인성유형을 낳는다. 북한에서는 식량을 비롯해서 인민이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을 김일성 수령이 주는 시혜로 인식한다. 북한체제에서 국가소유와 배급제 방식은 신민형 인성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中央計劃生産과 中央統制의 分配 메카니즘이 인성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명령경제는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경쟁이 없고 수직적 관리체계에 대해 복종만 하면 된다. 이런 경제구조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경쟁이 불필요하게 되어 마치 가족을 경제단위로 하는 자급자족적 농경사회에서와 같은 순박하고 묵묵한 인성을 창출한다.

넷째, 전후 복구과정에 어느 정도 이룩한 경제적 성장이 臣民型 人性을 강화했다.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복구를 통한 社會主義 經濟的 土臺의 성장을 정치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김일성정권은 대중속에서 위신과 신망, 지지를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의 신민형 인성은 이러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형성, 강화되었다.

### 3. 思想的 體系

人性의 일부가 세계관 또는 의식구조를 포함한다고 할 때 북한사회의 지배이념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는 人性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김일성은 공산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가 결코 높지 않음을 깨닫고 휴전후부터는 정치교화사업을 전개했다. 政治教化事業의 내용은 맑스-레닌주의를 교양하는 것이었다. 이후 1955년부터는 맑스-레닌주의는 점차 김일성 사상 또는 주체사상으로 대체되었으며 유일사상 교양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가치의 기준으로 교육받게 되었다. 그밖의 다른 사상은 잡사상, 종파주의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유일사상체계라는 사상적 토대위에서는 다원주의적 사상과 개인의 자율은 금지되며 신민형 인성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 4. 政治的 要因

북한주민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인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적 토대는 유일적 수령 개념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당-대중의 집단주의 체제이다. 수령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단결하고 黨은 수령의 사상을 정책화하면서 이를 실천해나가는 영도적 핵심체이며, 인민대중은 黨의 領導를 받으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충실히 실천해나가는 주체로 정의되고 있다.

수령, 당, 대중중에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수령이다. 수령은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 적성, 한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

영도자이며 혁명투쟁에서 쌓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영도자로 선전되고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하며, 組織·思想的으로 統一 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이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두번째 특징으로서 북한주민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엄격한 査察制度, 住民統制體制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복종은 유아기부터의 정치사회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며,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복구 등의 정치적 업적도 작용했지만 사찰제도를 통한 강제도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인 복종과 존경에 기인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양식의 철저한 주민통제 및 사찰의 기구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과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주민감시의 실상을 살펴본 결과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監視가 매우 체계화되어 있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요인들이 인성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

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수령은 일제시대의 ‘天皇’ 이상으로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수령에 대해 절대복종하는 臣民性을 가질 수 밖에 없다. 臣民性이 지배적인 市民性(citizenship)의 개념은 없다. 시민성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있으며 그것도 수령과 당에 유기적으로 결속될 때만 그렇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는 집단에도 시민성이 없다. 집단인 黨도 김일성에 대한 臣民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權力엘리트의 性格

신민형 인성을 형성시킨 또 하나의 사회구조적 조건은 엘리트들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인적 토대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김일성에 충성하는 革命엘리트가 지배적이다. 사상에서 유일사상만 존재하듯이 인적인 측면에서도 김일성에 복종하는 신민형 엘리트만 유일적으로 존재한다.

두번째, 북한사회에서 엘리트가 되는 데는 黨性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당성이란 곧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복종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위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신민형 인성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사회에서는 인적 토대면에서도 신민형 인성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강하다.

## 第 V 章 人間改造事業

지금까지 살펴본 신민형 인성을 발달시킨 사회구조적 조건외에 북한사회에서 신민형 인성을 발달시킨 직접적인 정책사업으로 人間改造事業이 있다. 인간개조사업이란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말한다.

인간개조의 目的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는 데 있었다.

인간개조의 基本內容은 주체사상교양이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노동을 사랑하는 교양이었다. 인간개조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상개조이며 인민을 김일성의 臣民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인간개조 原則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것이었다. 북한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을 사회의 어느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하고 공산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으로 보고, 노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영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농민과 인테리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간개조사업의 결과 북한주민은 어떠한 인성을 갖게 되었

겠는가? 인성은 곧 사회적 산물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교육제도, 철저한 조직생활, 일상생활에서의 감시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주민은 대체로 '김일성의 의도대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社會化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第 VI 章 北韓社會 臣民型 人性的 下位類型

북한의 사회구조적 조건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한 북한주민의 인성유형을 북한소설과 귀순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북한주민의 신민형 인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下位類型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1. 家臣主義

家臣主義는 신민형 인성의 가장 典型的 類型이다. 가신주의는 가부장주의와 동전의 앞뒤처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주의에서 지배자는 主人이며 피지배자는 家臣이다. 따라서 가부장주의가 지배적 이념으로 피지배자의 동의를 받는한 피지배자는 가신주의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가신주의적 속성을 가지는 까닭은 첫째는 유교적 영향이며 둘째는 북한 김일성정치체제의 영향이다. 북한에서 개인은 김일성 '절대군주'의 家臣 또는 충직한 종이다. 이것은 인민



들의 모든 문제는 수령의 시혜와 보살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인민들은 수령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가신주의는 북한체제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소유제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의 배급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소설에 나타난 구체적 내용들에 의해서 북한의 현실로 간주될 수 있다.

## 2. 權威主義

북한주민의 신민형 인성의 두번째 하위유형은 권위주의이다. 어느 사회에나 권위주의적 요소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서 윗사람에 대한 家臣主義는 곧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권위주의로 연결된다.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곧 사회질서 전체에 권위주의를 일반화하게 되어 주민들의 인성을 권위주의로 만든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첫째, 전통적인 家父長的 權威主義, 둘째, 수령-당-대중의 位階的 政治構造와 결합해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권위주의를 官僚主義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전쟁직후부터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계속 지적해 왔다. 관료주의 문제는 아직도 지도부에서 나오는 많은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실제로 관료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치유적 차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관료주의가 문제시되는 것은 人性이 권위주의적으로 형성되

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3. 集團主義

신민형 인성의 세번째 하위유형은 集團主義 또는 全體主義, 反利己主義 및 反個人主義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 글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발달된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의 집단노동, 북한의 사회구성원리인 군중노선 같은 것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북한의 主體思想은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적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북한에서는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간다고 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

### 4. 排他主義 또는 敵對感

臣民型 人性的 네번째 하위유형은 排他主義 또는 敵對主義이다.

배타주의의 연원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美軍으로부터의 피해의 경험이다. 이것이 지배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발전되면서 배타주의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배타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뿐만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조아 사상, 다원주의 등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포함한다.

배타주의가 신민형 인성에 속하는 이유는 배타주의 안에서는 주체사상이나 조선민족이외에 다른 민족이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知的 自律性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배이념으로 교육받은 것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민형 인간이다. 全體主義 社會일수록 인간은 배타적이기 쉬우며 그 排他性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劃一主義的 感情에 기인한다.

## 5. 家族的 温情主義

臣民型 人性의 다섯째 하위유형은 家族的 温情主義이다. 가족적 온정주의가 신민형인 까닭은 가족주의는 市民社會가 발달하지 않은 臣民社會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성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가 발달해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에서 집단간의 경쟁이 야기시킨 집단내부의 통합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무자비한 억압이 있는 사회에서는 가족내부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면 시민사회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

초집단인 가족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家族的 温情主義가 발달하게 된 까닭은 家庭을 革命基地로 강조해 온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인간의 생산을 위해 가정의 혁명화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가정을 社會主義 革命과 教化를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공공화하는 시책을 편 뒤 오히려 가족성원들의 정서적 유대나 감정을 더 긴밀하게 하는 잠재적 기능이 나타났다.

## 6. 受動性

臣民型 人性의 여섯번째 하위유형은 受動性 또는 他律性이다. 신민사회의 덕목이 절대군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체적인 명령이 있기 전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행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市民社會에서 처럼 개인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선택하도록 사회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과 동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다. 이것이 북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성 저하와 동기유발 위기의 원인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集團的 競爭主義가 도입되어 있으나 개인간의 경쟁에 비하면 추진력이 미약하며 경쟁의 보수도 미미해서 의미가 적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북한에서는 노동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특별히 발달해 있다.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주된 덕목으로 교양하고 있다. 수동성 인성의 또 다

른 특징은 아래에서 살펴볼 일상생활형의 저항과도 연관되어 있다.

## 第Ⅶ章 二重의 人性과 日常生活型의 抵抗

### 1. 二重性

앞의 여섯가지 하위유형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하나의 인성 유형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二重性이다. 앞의 인성유형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內面化되었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속성인 個人主義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公的 選好만 겉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젠가는 私的 選好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2. 日常生活型의 抵抗

인간을 개조하려는 북한사회 지배자의 의도가 피지배자에게 완벽히 수용되어 내면화된 것은 아니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에 의하여 침투당하기 쉽다.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못하며 또 그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

르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더욱 발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도 피지배자는 思惟하는 정신능력이 있는 인간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느 사회나 지배자의 무기가 있으면 피지배자의 무기도 있게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럼 시민사회가 발달해 있으면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성장하여 지배층에 대항하여 집합행동이나 공개적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絶對君主'가 지배하는 억압적 사회에서는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무모한 짓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의 저항, 소극적 저항이 발달하게 된다.

日常生活型의 저항이란 피지배자들이 지배자가 시키는대로 로봇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불복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일하면서 일부러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無知한 체 하기, 시치미 떼기, 줌도둑질하기, 비방하기, 사보타지 하기 등을 포함한다.

북한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최소한의 저항 형태인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 第Ⅷ章 集團別 人性의 變異

집단별 인성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階級別 差異, 世代間的 差異가 주된 變異로 보인다. 계급별 차이 및 세대간의 차이는 집단별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에게는 위에서 살펴본 臣民型 人性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노동계급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물질적, 사상적 통제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주로 도시지역 공장에서 중앙의 '絶對君主的' 정치의 통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또 가장 집단적인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다. 신민형 인성의 하위유형의 전형을 가신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수동성이라고 볼 때 노동계급은 그러한 전형에 가장 가깝다.

그런데 노동계급중에서도 個人間에 變異가 있다. 노동계급가운데는 지난날 큰 제철소나 제강소에서 일하면서 집단적인 생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노동이나 계절노동을 한 사람도 있다. 또한 노동계급중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노동계급 대열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農民階級은 노동계급만큼 집단주의나 복종주의로 개조된 것 같지는 않다. 농민은 오랫동안 私的 소유의 울타리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의 '낡은' 잔재가 많아 공동경리에 대한 주인

다운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전통적인 소유의 영향 뿐 아니라 농민들은 권력의 상징적, 제도적 통제로부터도 멀리있다. 헤게모니 기관들이 있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적다. 농민 고유의 문화적 전통, 민간 종교, 민간의식, 민간풍습속에 살고 있어서 농민은 지배적 사상에 덜 지배당해 있다. 농민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메카니즘도 노동 계급에 비해서 강하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은 혁명성과 조직성이 높지 않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보수주의 등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인테리는 家臣主義, 集團主義, 服從主義 등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전형의 인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집단은 인테리 못지 않게 사상적으로 일탈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그들은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몰들기 쉽다고 비판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제국주의의 압박도 지주, 자본가의 착취도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第Ⅸ章 結 論

집단간에 약간의 變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상생활형의 수동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사회구조하에서 북한주민의 인성은 대체로 위에서 지적한 가신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복종주의 등과 같은 인성유형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성유형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臣民型 人性이라고 할 수 있다. 臣民社會에서 지배적인 인성유형인 것이다. 臣民이란 절대군주의 臣下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가신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복종주의, 체념적인 수동성 등이 신민형 인성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臣民型 人性은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주체적, 자주적 인간관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체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이라는 데서 자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민대중의 개념이다. 인민대중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다. 생활하는 것은 개별적 사람이지만 그 생활은 사회적 집단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집단적 시민권(collective citizenship)은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수

령론 때문에 모순적이다. 더욱이 시민권(citizenship)을 국가, 사회, 개인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는 북한의 주체적, 자주적, 자율성의 개념은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성은 主體的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인 臣民的이다.

북한의 臣民型 人性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신민형 인성이 저항적이지 않고 순종적이라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에 매우 효과적인 인성이며 따라서 외부적·내부적 도전이 있어도 체제고수에는 매우 효율적인 인성이다. 최근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여 붕괴되고 심지어 중국에서 마저도 1989년에 천안문사태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매우 긴 시간동안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신민형 인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신민형 인성이 북한주민들에게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면에 또 하나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선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비록 조직화된 저항으로는 발전하지 못해도 일상생활형의 저항으로 잠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적 인성은 최근에 와서 점차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환영적(illusory)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피지배자가 순종한다. 과거 50년대 후반 60년대에는 고속성장이라는 물질토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물질토대

가 침체된지 오래다. 물적 토대가 더욱 악화되고 외부의 정보통제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면 신민형 인성의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이중성이 공개적인 저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련과 동구에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한 것은 臣民社會의 人性을 넘어 市民社會의 人性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라면 북한에서 臣民型 人性이 市民型 人性으로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미약하나마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의 인민대중이 철저하게 臣民化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중적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인테리 계급으로 불리어지는 신중관계급의 성장이다. 북한에서 인테리 계급은 신민형 인성의 굴레를 가장 약하게 쓰고 있는 계급이다.

#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및 資料	2
第 II 章 人性의 概念	5
1. 古典的 理論들:	
Freud, Erikson, Parsons, 象徵的 相互作用論	6
2. 史的唯物論的 觀點	10
3. 分析의 焦點	12
第 III 章 北韓住民의 人性研究를 위한 理念型:	
市民社會 對 臣民社會	14
1. 市民社會	15
2. 臣民社會	20
第 IV 章 北韓社會 臣民型 人性形成의 社會構造的 要因	25
1. 傳統文化的 · 歷史的 背景	25
2. 經濟的 土臺	30
3. 思想的 體系	38
4. 政治的 要因	44
5. 權力엘리트의 性格	52

第 V 章 人間改造事業	54
第 VI 章 北韓社會 臣民型 人性的 下位類型	59
1. 家臣主義	59
2. 權威主義	72
3. 集團主義	74
4. 排他主義 또는 敵對感	81
5. 家族的 温情主義	84
6. 受動性	87
第 VII 章 二重의 人性과 日常生活型의 抵抗	92
1. 二重性	92
2. 日常生活型의 抵抗	99
第 VIII 章 集團別 人性의 變異	103
第 IX 章 結 論	109

## 第 I 章 序 論

### 1. 研究目的

이 연구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북한사회의 變化 展望과 人性의 關係에 관한 것이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했을 때 많은 논자들의 관심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러 부문의 위기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북한이 붕괴한 동구나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주장하며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동구 및 소련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데는 경제위기와 독재 등의 문제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항한 밑으로부터의 體制抵抗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사회는 아직 체제고수를 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체제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北韓住民의 人性이 이러한 체제문제에 관련이 있는 것인가?

북한사회의 변화 여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社會心理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연구자들은 지금까지 社會構造的 側面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그 결과 사회구조속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되고 그 경험이 어떠한 人性을 형성하며 그러한 人性이 사회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人性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연구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둘째 목적은 北韓住民의 人性研究를 통해 남북한의 異質性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분단이후 반세기에 가까와지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가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야기시킨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얼마만큼 이질적인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한민족이 통일을 실현한다고 할 때 정치경제적 구조의 통일만으로는 사회적 통합까지 보장할 수 없다. 하나의 사회문화적 공동체가 정치경제적 통일을 뒷받침한다고 볼 때 북한주민의 人性에 대한 이해는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유형의 人性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현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政策的 課題를 제시하리라고 본다.

## 2. 研究方法 및 資料

北韓住民의 人性研究는 사회구조와 같은 거시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微視的 현상이자 社會心理的 현상에 관한 것이어서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같이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인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말미암아 間接的인 觀察方法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구는 대체로 두 단계의 논리적 추론에 기초한 간접적 관찰의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연역적 방법에 의거하여 북한주민의 人性의

특성을 도출한다. 人性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구조적 조건과의 相互作用의 産物이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구조적, 정치적 특성으로부터 人性의 유형을 도출해야 한다. 人性의 社會化는 사회관계의 재생산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사회관계를 전통 문화적, 역사적 배경, 경제적 토대, 이념적 체계, 정치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그 사회가 재생산하고자 하는 人性의 典型을 유추할 수 있다.

두번째로 연역적 방법으로 도출한 人性의 유형을 北韓의 小說과 歸順者들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檢證한다. 북한의 소설은 전체의 주제면에서는 政治性和 啓蒙性을 강하게 띤다. 북한의 소설은 대체로 정치적 주제를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제시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명적 주인공’이 어떻게 하여 ‘혁명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형적인 혁명상의 인물을 허구적으로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주인공 이외의 등장인물과 사건전개과정의 묘사에서는 세부적인 사실을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寫實主義的 資料로서 가치가 있다.<sup>1)</sup>

1) 한 북한소설 속에 등장한 주인공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은 소설을 통해서도 지난날 우리 인민의 경제형편과 사회계급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소. 아마 그래서 맑스나 엥겔스도 발자크의 소설들이 당대의 경제를 연구하는데서 전문경제학서적들에 못지않는 훌륭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것 같소. 그렇지 상옥동무?” 백보흠, “절정,”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평양: 문예출판사,



歸順者들의 증언은 많은 내용이 자신들의 귀순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증언하는 부분도 있지만 人性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비정치적인 영역이어서 資料로서 客觀性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은 연역적 추론의 결과와 소설분석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의 초안이 완성되었을 때 북한에서 최근에 귀순한 네 사람<sup>2)</sup>에게 이 논문의 요약본을 읽게 한 후 북한사회의 현실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관해서 심층적인 토론회를 가졌다. 평가와 토론의 결과 북한 현실과 괴리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귀순자들의 증언은 이 논문의 초안을 감수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본문에 직접 그 증언의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

1988), p. 155.

2) 네 사람의 이름과 귀순직전 직업은 다음과 같다. 조승군(체코 유학생), 최봉례(공장 노동자), 어승일(외화벌이 노동자), 김남준(현역 소위).

## 第 II 章 人性의 概念

人性이란 가치, 태도, 동기, 욕구, 신념 등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개인의 心理的 屬性을 의미한다.<sup>3)</sup> 그러나 人性은 개인적 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 現象이다. 왜냐하면 人性은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또한 역으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의 人性이 사회구조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한 社會의 最頻의 人性은 1) 사회성원의 人性의 最頻置이고, 2)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나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永續性을 갖는 人性 특성이며, 3) 社會的 正常型의 기준이고, 4) 사회의 지배적 에토스 (ethos)를 반영하고 있으며, 5) 사회가 요구한 혹은 사회와 조화되는 人性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4)</sup>

그렇다면 人性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며 人性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人性은 사회와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우선 사회

3) James House, "Social Sturcture and Personality," in Morris Rosenberg and Ralph Turner, 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p. 507.

4) 고영복,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성격," 『북한학보』, 제3집(1979) 참조.

5) Glen Elder, Jr., "On Linking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in Glen Elder, Jr., ed., *Linking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Beverly Hills: Sage, 1973); Barbara Engler, *Personality Theories* (Boston: Houghton Mifflin,

학과 심리학을 통틀어서 人性의 형성에 관한 古典的 理論인 프로이트와 에릭슨, 파슨즈,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살펴봄으로써 人性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한다.

### 1. 古典的 理論들:

#### Freud, Erikson, Parsons, 象徴的 相互作用論

人性研究의 가장 고전적인 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人性의 구조를 이드(id), 自我(ego), 超自我(superego)의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분의 역학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하여 人性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본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드의 본질은 생물적 본성 또는 충동이다. 이드는 이성이나 논리법칙에 지배되지 않고 가치의식, 윤리, 또는 도덕성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한가지, 쾌락원리에 따른 본능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自我는 이드가 요구하는 욕구의 충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세계, 즉 환경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 자신을 환경에 순응시킨다든가 환경을 지배하든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환경에서 얻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형성된 새로운 심리적 기구가 自我(ego)이다. 自我는 퍼스낼리티의 집행기관의 역할을 맡아서 이드와 초자아를 조

---

1991); Leslie Stevenson, *Seven Theories of Human N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참조.

절, 통제하고, 총체적인 인격과 장기적인 요구충족을 위해 외부와의 관계를 맺어나간다.

이에 반해서 超自我는 人性중에서 道德的, 陪審的 機能을 맡는다. 초자아는 자아에서 발달되어 나오는 것이지만 사회적 규범과 도덕성이 내면화된 것으로서 사회적 압력과 억압으로부터 강화된다.<sup>6)</sup> 이러한 이드, 自我, 超自我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人性의 유형이 결정된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人性理論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人性은 개인과 사회가 어떠한 역학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드와 자아이며, 사회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자아이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전통을 따라 人性理論을 발전시킨 에릭슨 (Erik Erikson)은 프로이트가 性的慾求의 心理에 너무 치중하고 아동기의 人性에 한정했던 문제를 보완하여 전생애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에릭슨은 전생애를 8단계의 인성유형으로 나누면서<sup>7)</sup> 각 단계마다 개인이 사회와 어떠한 억압적 또는 자율적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 人性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6) C. S. Hall, *The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설영환 편역, 「프로이트 심리학해설」(서울: 선영사, 1985), pp. 115~18.

7) Erikson이 분류한 생애의 단계별 성격유형의 변이는 다음과 같다. 출생~1세, 신뢰 대 불신; 1~3세, 자율 대 羞恥와 회의; 4~5세, 숭선 대 죄책; 6~11세, 근면 대 열등; 12~20세, 自我正體 대 역할 혼동; 20~24세, 친밀 대 고립; 25~65세, 발전 대 停滯; 65세 이후, 자아통합 대 절망. Erik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0) 참조.

즉 건강한 人性의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적절한 自律性과 사회의 적절한 統制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슨즈(Talcott Parsons)의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은 社會的 決定論을 강조했다. 파슨즈에 의하면<sup>8)</sup> 人性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첫째, 인간은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며, 둘째로 타인의 기대에 순응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획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 및 순응 과정에 작용하는 두가지 사회적 기제는 社會化(socialization)와 社會的 統制(social control)이다. 사회화 메카니즘은 가치, 신념, 언어, 그밖의 상징 등 문화적 유형들이 人性體系로 내면화되는 메카니즘이다. 사회화 과정에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습득되며 긴장, 갈등, 고민 등의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안정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사회통제는 사회화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가지 賞罰機構, 意識的 節次 등을 포함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의 규범과 문화의 囚人이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은 프로이트가 내면의 자율성으로 파악했던 이드, 자아의 개념마저 폐기된 철저한 社會決定論이다. 프로이트에 있어서도 인간은 완전히 사회화되지 않은 사회적 동물이다. 人性은 규범이나 문화적 가치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룡(Dennis Wrong)은 파슨즈의 인성개념을 過剩社會化論이라고 비판하였다.<sup>9)</sup>

8) Talcott Parsons,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McGraw-Hill, 1937), pp. 370~90.

미드(George H. Mead)와 블루머(Herbert Blumer)로 대표되는 象徴的 相互作用論(Symbolic Interactionism)은<sup>10)</sup> 인간은 사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회를 포함한 환경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사유하여 평가하고 해석하고 대안적 행위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정신능력(mind)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능력에 기초하여 인간은 사회적 상황속에서 하나의 象徴的 行爲의 對象으로서의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아를 형성시켜간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아는 타인과 상황을 정의하고 해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안적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인간행위의 能動性을 강조한다.<sup>11)</sup>

지금까지 살펴본 人性形成의 고전적 이론들은 人性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人性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일반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론들은 북한과 같은 구체적 사회의 人性의 특수성을 찾아내는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정신분석학, 파슨즈의 구조기능주의, 미드와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개념을 매우 추상

9) Dennis Wrong, "The Oversocialized Conception of Man in Moder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6, no. 2(1961).

10)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New Jersey: Prentice-Hall, 1969); George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참조.

11) 상징적 상호작용론내에는 사회구조와 自我 결정성에 관한 두가지 對立되는 學派가 있다. Herbert Blumer로 대표되는 Chicago학파는 人性의 유동적 變化를 강조한다. 그에 반해서 Manford Kuhn으로 대표되는 Iowa학파는 人性의 安定的 구조성을 강조한다.

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내용이 捨象되었고 또한 沒歷史的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상이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상이한 人性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비교의 개념이 없다. 특히 프로이트는 개인과 사회간의 기본적 적대감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충들로부터 야기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非社會科學的이고 生物學的 還元主義이다. 사회를 다양한 변이를 가지는 독립변수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常數의 概念으로 인식한 것이다.

## 2. 史的唯物論的 觀點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人性에 대한 레오나르드(Peter Leonard)의<sup>12)</sup> 史的唯物論的 接近은 물질적 조건, 계급관계, 존재조건이 人性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사회의 내용물을 매우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앞의 다른 이론보다 진일보했다. 레오나르드는 人性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존재하는 물질적 조건과 계급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물질적 존재의 고찰로서 개인의 태도, 의도, 행동을 간단히 해석해버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물질적 존재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人性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오나르드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12) Peter Leonard, *Personality and Ideology*,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자본주의와 인간발달: 인간의 인성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참조.

속에서 임금노동자, 실직자들과 같은 주변인들이 물질적 계급적 측면의 從屬的 周邊性 하에서 어떻게 周邊人의 人性이 형성되는지를 분석했다.

그밖에 사회를 하나의 獨立變數로 보고 사회의 變移에 따라 人性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比較社會的 研究의 고전적 사례가 있다.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일본인이 칼과 같은 매섭고 무자비한 면이 있는가 하면 국화와 같은 부드러운 면이 공존하는 양면적인 人性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일본의 다다미방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유아기의 특유한 배변훈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하였다.<sup>13)</sup>

마아가렛 미드(Margaret Mead)는 뉴기니아의 세개의 원시부족에서 남성과 여성의 人性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참불리(Tchambuli) 부족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 다른 사회의 전통적인 성격과 반대인데 그것은 그 부족의 특유한 사회구조적 조건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14)</sup>

지금까지 살펴본 人性研究의 여러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人性은 개인을 사회적 가치 및 규범과 같은 문화적 조건, 물질적 조건, 정치적 조건 등 사회에 적응시키는 社會化의 產物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人性에 관한 연구는

13)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New York: Meridian Books, 1967) 참조.

14) Margaret Mead,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ew York: Dell, 1935) 참조.



북한사회의 구조적 조건에 관한 천착이 요구된다. 둘째, 人性은 사회적 결정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社會構造의 囚人은 아니다. 인간의 내적 자율성(libido, self 또는 mind)에 기초한 개인의 선택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를 역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고 행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3. 分析의 焦點

이러한 명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의 전략을 시사하여 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틀내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글에서는 북한 사회구조의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市民社會와 臣民社會라는 理念型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이념형에 비추어 북한사회를 臣民社會로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人性은 개인의 심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구체적 특수성이 북한주민의 人性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의 구체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社會構造的 條件을 분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人性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회구조로 전통문화적·역사적 배경, 경제적 토대, 이념적 체계, 정치적 요인, 지배엘리트의 성격, 인간개조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내의 人性의 變異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사회내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내에서도 집단

에 따라서 개인들의 사회적 경험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내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북한의 주요 계급인 노동계급, 농민계급, 근로인테리 등의 사회계급, 그리고 세대간 차이를 비교의 틀로 삼고자 한다.

넷째, 북한체제가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사회화 메카니즘의 영향과 사회통제의 정도가 강하지만 북한주민을 社會構造의 囚人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간고유의 자율성에 의한 人性의 특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간의 사유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피지배자가 억압적인 사회통제 메카니즘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조명해주는 이론적 개념으로 스코트(James Scott)가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라고 하는 일상생활형의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과 하벨(Vaclav Havel)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들에게서 관찰한 약자의 힘(power of the powerless)이라는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들을 이론적 시각으로 사용하여 북한에서도 그러한 저항과 힘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하게될 것이다.<sup>15)</sup>

---

15)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Central-Eastern Europe* (London: Hutchinsom, 1985) 참조.

### 第 Ⅲ 章 北韓住民의 人性研究를 위한 理想型： 市民社會 對 臣民社會

북한 사회구조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臣民社會라는 理想型(ideal type)을 도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북한을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북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人性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분석시각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는 생산양식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 관한 정치원리가 설명되지 못한다. 현존 사회주의는 대체로 전체주의적이라는 경험적 관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개념으로부터는 분석적 개념들을 도출할 수가 없다. 사회과학에서 啓蒙時代 이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市民社會論이 민주주의의 정치적 원리를 제공한 이론적 기초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사회와 국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해 매우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앞에서 본대로 人性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자율적이나 또는 속박을 받느냐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또 사회와 국가의 자율과 억압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시각에서 발전된 이론인 市民社會論을 이 연구에서 북한사회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市民社會論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臣民社會論을 설정하여 북한을 市民社會가 아닌 臣民社會의 典型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글의 이론적 시각이다.<sup>16)</sup>

## 1. 市民社會

인류역사에서 대중의 지위가 종속적인 臣民(subject)의 지위에서 자주적인 市民(citizen)의 지위로 변화된 것은 노예제도, 봉건주의, 절대국가 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면서 등장한 경제적, 정치적 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市民社會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법적 신분을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분리하였다. 개인은 더이상 귀족의 노예도 아니고 봉건영주의 농노도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구속된 臣民이 아니라 정치적 명에서 해방된 市民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이라 볼 수 있는 노동자계급은 작업장에서는 작업규칙에 복종해야 하지만 퇴근하여 귀가하면 자유로운 시민이다. 市民社會는 개인을 사적 이기주의자와 공적 시민으로 분리시켰다. 봉건사회가 사적영역이 없는 臣民社會라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적영역이 보장된 市民社會

16) 시민사회론은 최근에 한국사회과학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이론틀로 사용했던 계급적 시각이 한국사회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시민사회론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가진바 있다. 국내의 시민사회론에 대해서는 김성국,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1992); 신광영,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제12호(1992); 유팔무, “그럼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경제와 사회」, 제12호(1992) 참조.

17) John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 New York: Verso, 1988), p. 57.

이다.<sup>17)</sup>

市民社會의 기원은 부르조아 경제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홉스, 로크, 페인 등이 주장한 것처럼 市民社會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歴史的 現象이라고 주장한 점에서 마르크스가 옳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市民社會는 특정한 생산양식 및 생산관계, 계급 분화 및 계급갈등,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정치적, 법제적 메카니즘으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산물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특징적인 사유재산제도, 자유노동시장, 다원주의가 발달해야 市民社會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市民社會의 기원을 무어(Barrington Moore)는<sup>18)</sup>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인 힘의 관계로 설명한다. 무어는 市民社會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기원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市民社會의 발전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무어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1) 자의적인 통치자를 견제하고, 2) 자의적인 규칙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으로 대체 하며, 3) 규칙의 제정과정에 국민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이 바로 부르조아지라고 보았다. 부르조아지는 富를 바탕으로 恣意的인 君主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어에 의하면 근대화 과정에서 부르조아지가 성장하여 부르조아 혁명이 성공한 나라인

---

18) Barrington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Books, 1966) 참조.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9)</sup> 즉, 부르조아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국가를 견제하는 '사회세력'이 존재하는 사회가 市民社會이며 그 사회세력의 주체가 市民이라는 것이다.

현대 市民社會는 부르조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을 양산한다. 市民社會는 경제영역이외에 가족, 자발적 결사체, 전문직, 매스미디어, 학교, 감옥, 병원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중요한 시민생활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새로운 집단들의 성장과 그들의 지식, 권력, 권위는 국가의 恣意的 權力에 대항하는 사회적 힘의 원천이다.

그람시(Gramsci)는 사회구성체를 경제, 국가, 市民社會로 구분하고 '市民社會'라는 용어는 물질적 생산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며 국가의 재원에 속한 조직들 중의 하나도 아니면서 경제와 국가라는 두가지 중요한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비교적 영속적인 제도들인 사회구성체의 여타 조직들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sup>20)</sup> 그런식으로 규정된 市民社會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국가의 통제를 받는 종교조직들을 모두 제외

19) 부르조아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밑으로부터 농민혁명이 일어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고, 위로부터 엘리트 혁명이 일어난 일본과 독일과 같은 나라는 파시즘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본다.

20) Robert Bockok, *Hegemony* (1986), 이향순 역, 「그람시 헤게모니의 사회이론」(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1), p. 57.

하고 남은 종교제도들과 조직들이 될 것이다. 자본가들이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고 또 일부 방송매체들은 영국방송공사(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들의 입지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의 검열이나 정치적 통제밑에 놓여있지 않는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들은 市民社會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의 많은 조직들이 국가관료제 조직의 외부에 조직되어 있으면서 또한 자발적인 후원에 의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여성재단을 비롯해서 최근의 여성운동에 이르는 여성들의 조직체, 청소년 단체들, 스포츠클럽, 자연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거나 국가가 정치적으로 직접 통제하지 않는 수 많은 예술 및 여흥집단을 포함한다.<sup>21)</sup>

市民社會에서 국가와 사회 관계의 전형은 입헌국가를 주장하는 자연법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에 의해서 가장 잘 제시되었다.<sup>22)</sup> 존 로크에 의하면 사회는 자연적(natural)이다. 그 자연적 사회는 국가에 의해서 보존되고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은 사회의 자연적 상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도구로서 자연상태의 잠재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자연상태의 부정이 아니라 불완전

21) *Ibid.*, p. 58.

22) 이하 시민사회론은 John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를 참조하였음.

한 사회성(sociality)을 치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크는 ‘국가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한다. 입헌적 국가를 통하여 市民社會를 지배하는 사람은 피지배자의 피신탁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통치자를 자연법 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따라 통치하여야 하며 아무도 법으로부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국가는 必要惡이며 자연적 사회는 無限한 善이라고 본다. 인간은 평등한 천부인권을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천부의 인권은 폐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 페인에 의하면 홉스나 로크와 같은 계약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는 시민들의 동의(consent)에 기초한다고 본다. 인간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호 협동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상호이익에 입각한 교환의 양식을 발전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市民社會가 발달할수록 국가제도나 법의 필요성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페인은 市民社會의 다양한 부분들이 자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메카니즘만 필요하다고 본다. 페인에 의하면 그럼에도 근대세계는 국가의 과잉통치때문에 덜 시민화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페인은 이러한 독재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독재국가는 비자연적이기 때문에 취약하며 시민의 지지를 못받는다라는 것이다.

民主國家論을 주장하는 토크빌(Tocqueville)은 자연상태를 가정한 當爲論的 市民社會論者들과는 달리 힘의 역학관계에 기초한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한다. 토크빌은 선거를 통해 수립된 국가의 신



종 독재를 경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생활은 점차로 사회를 대표하고 보호한다고 선전하는 정치권력에 의하여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권력과 권위는 점차 국가의 손에 집중되고 국가는 시민생활의 통제자, 검사자, 충고자, 교육자, 처벌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결사체의 성장을 통하여 독재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多元主義的 自治的 市民社會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사회적 세력이 없는 국가권력은 항상 위험하며 독재의 면허증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市民社會論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정치원리로 수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제3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적인 정치원리로 수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市民社會의 理念型과는 대조적인 사회라는 것이 이 글의 시각이다. 다음 절에서 북한사회를 규정하는데 적합한 이념형인 臣民社會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臣民社會

臣民社會란 市民社會가 발달되기 이전 단계의 사회이다. 臣民社會에서 개인은 경제 외적 강제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이 없는 종속적인 신민(subject)인 것이 특징이다. 신민사회에서 개인은 영주에 예속된 농노의 신분과 같이 국가권력의 조직에 의하여 직접 통제되거나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sup>29)</sup> 臣民社會의 예로서 고대 奴隸制 사회, 중세의 封建制 사회, 舊蘇聯, 舊東歐, 北韓 등 국가사회

주의 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절대군주가 지배하며 개인은 절대군주 앞의 臣下 또는 臣民에 불과하다.

이들 사회에서는 市民社會에 특징적인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봉건주의나 사회주의가 특징적이어서 사유재산제, 시장메카니즘, 다원주의적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市民社會의 기원이 부르조아 경제의 발전에 있는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관점과 일치한다.

이들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을 臣民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지배이데올로기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세 봉건제하에서는 기독교가 발달했으며 한국의 봉건시대인 조선조에서는 유교가 고도로 발달했으며 臣民社會의 한 유형인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또는 주체사상이 발달해 있다.<sup>23)</sup>

스탈린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國家機構의 囚人(captive clientele)에 불과하다. 거기에서는 일당체제의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이며 국가의 유일 당이 유일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이 달리 갈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다.<sup>24)</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사회를 전형적인 臣民社會의 예로 파악한다.

23) John Keane, *Democracy and Civil Society*, p. 57.

24) 주체사상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주체로서 개인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25) Ghita Ionescu, "Patronage under Communism," in Ernest Gellner and John Waterbury, eds. *Patrons and Clients* (London: Duckworth, 1977), p. 98.

臣民社會를 정당화하는 이론의 기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홉스(Thomas Hobbes)에서 찾을 수 있겠다. 홉스는 自然狀態를 萬人對 萬人の 투쟁으로 보며 개인이 무한한 국가의 권력에 복종할 때 만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26)</sup> 국가는 그래서 자연상태에 대한 否定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되고 수령의 혁명정신으로 교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홉스의 국가중심주의적 이론은 헤겔에 의하여 더욱 잘 발전되었다. 헤겔은 인류사회가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순으로 辨證法的으로 발전된다고 본다. 그런데 가족사회의 단계를 넘어선 市民社會는 개인들, 계급들, 집단들, 그리고 제도들의 모자이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헤겔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최고의 공적 권위인 국가만이 市民社會의 不正義를 치유할 수 있고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普遍的인 政治共同體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sup>27)</sup>

이러한 헤겔의 국가중심주의적 관점은 수정 마르크스주의자 라살레(F. Lassalle)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라살레는 마르크스의 국가 소멸론을 비판하고 국가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기존의 국가를 바탕

26) 홉스가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옹호한다는 뜻은 아니다.

27) 헤겔의 이러한 보편적 국가의 개념은 마르크스에 의하여 비판되었다. 국가는 보편적 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부르조아지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으로 현실적인 노동의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주의적 사회주의는 라살레가 마르크스주의를 최초로 노동운동에 접목시킨 Arbeiterprogramm에 구현되었다. 라살레에 의하면 국가는 일시적, 역사적 현상이 아니라 그 존재가치가 영구불변한, 따라서 인간의 정치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바로 자유를 향한 인류의啓發과 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라살레에게 국가는 인륜적 보편정신의 구현을 위한 절대적인 수단으로 나타난다. 라살레는 국가의 윤리적 의무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라살레는 국가는 인간의 모든 덕성이 실현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가 지배하는 공동체는 갈등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조화, 상호성, 단결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sup>28)</sup>

헤겔과 라살레의 國家中心的 理論은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오늘날 현존사회주의에서 실현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위로부터 市民社會를 통제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국가는 보편적 이익의 구현체이며 보호자라고 가정하고 있다. 국가가 모든 특정한 개별적 이익에 대해 윤리적 우월성을 가진다는 가정은 당·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의식화되어 있다. 당엘리트들만이 보편적 이익의 보증자이며 市民社會를 그 내재적인 재난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다.

28) Peter Gay, *The Dilemma of Democratic Socialism*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2), p. 77;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서울: 까치, 1989), pp. 326~27.

이러한 국가중심주의가 북한에 수용되어 권력의 정당성의 이론적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와 집단이 最高의 善이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북한의 집단주의와 전체주의가 반드시 이러한 이론적 원칙에 근거하여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헤겔과 라살레의 전통을 이어받은 스탈린주의가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를 전형적인 臣民社會로 규정하며 따라서 앞에서 본 市民社會(civil society)와 대조되는 유형의 사회로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사회의 구조적 산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人性은 臣民社會에 전형적인 臣民型 人性일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假說이다.

## 第Ⅳ章 北韓社會 臣民型 人性形成의 社會構造的 要因

북한에서 臣民社會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사회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이 사회주의화되기 이전의 사회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사회주의화된 이후의 제반 구조적 요인일 것이다. 북한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전통문화적·역사적 배경, 경제적 토대, 사상적 체계, 정치적 요인, 권력엘리트의 성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러한 臣民社會의 特性이 북한주민의 人性形成에 미친 영향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북한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요구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人性의 형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에 분석을 한정하고자 한다.

### 1. 傳統文化的·歷史的 背景

사회주의 사회를 흔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와 베트남, 중국, 북한 등 아시아사회주의로 구별하는 것은 양자가 단순히 지역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 상이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여기서는 북한이 사회주의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역사적 전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주민의 人性에 미친 영향을 유추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人性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儒敎의 傳統文化이다. 내재적 발전의 논리가 다져진 결과로서 얻어진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후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무력개입의 결과로서 얻어진 사회주의적 전환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외양적인 틀이 사회주의일지는 몰라도 내면적인 가치관과 문화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오히려 더 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정치문화는 사회주의에다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주민의 생활은 근대적인 것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잔기(residue)는 여전히 전통의 영역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주체사상의 이름으로 온존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sup>29)</sup> 몇가지 전통적 요소를 살펴보자.

첫째, 북한사회는 생산력 발전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이식된 데다가 체제수립이후 市民革命은 커녕 한번도 시민저항 운동 조차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시대에 보였던 중앙집권력이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官僚制의 경직성, 官尊民卑思想 등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대로 잔존해 있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전통적인 왕에 대한 숭배와 유사하다. 사회의 모든 요소는 위계적으로 질서지어져 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집합적 권리나 공동체의 복지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유교적 정치문화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와 강력한 이념적 친화성을 가지고

29) 최재현, “북한사회 이념속의 전통적 요소,” 『동아연구』, 제14집 (1988), p. 98.

있는 듯 하다. 이는 동구사회주의는 붕괴하였는데 반해 유교권의 아시아사회주의는 건재하고 있는 것에서 증명된다.

둘째, 북한에서는 한가족으로서의 사회라는 有機體的 概念이 일반적이다. 治者와 被治者의 관계가 부친과 자녀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다.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비유한다든가 온 국민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고 선전한다든가 김일성을 ‘아버이’로 호칭한다든가 하는 보기들은 일종의 ‘국가가족주의’ 내지 ‘가족주의적 국가’를 연상케 한다.<sup>30)</sup> 이것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닐 수 없듯이 김일성이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수령이 아닐 수 없다는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실제로 김정일 담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다.

자식들이 자기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sup>31)</sup>

북한의 전통적 정치문화는 家父長的이다. 이익표출의 家臣的 樣式(clientelist mode of interest representation)은 가부장적 정치조직의 양식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가의 시혜적 기능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능을 기초로 유교적 개념의 가

30) 이은죽, “북한의 가족제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p. 279.

3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1987.7), p. 17.



족모델 사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家父長的 政治文化의 전통은 권위주의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게 하는데 기여한다.<sup>32)</sup> 따라서 북한에서 국가는 강력한 통제의 메카니즘을 갖고 일상적 가정의례의 영역에까지 깊숙히 간섭해 들어가고 있으며 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市民社會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대단히 약하다.<sup>33)</sup> 이러한 문화적 토양은 臣民社會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결과적으로 ‘아버이 수령’ 김일성의 臣民이 되는 人性이 발달하게 되었다.

북한주민의 臣民型 人性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으로 일제동안 천황의 신민으로 살았던 경험의 영향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제치하의 경험은 식민지수탈을 위한 노력동원, 동화를 위한 강제,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현실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유사점이 많이 있다. 일제의 통치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공포정치였지만 절대군주제하의 신민의 위상을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일제 당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씌어진 글을 인용하고자 한다.

조선에 대한 시정은 너무나도 관료적이어서 조금도 民意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民度を 돌아보는 것이 없이 번쇄(煩碎)한 법령과 규칙을 남

32) Chong-Min Park, *Political Support Under Authoritarian Rule: The Case of South Korea*(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9), p. 111.

33) 최재현, “북한사회 이념속의 전통적 요소,” p. 119.

발하여 고압적으로 조선인에게 이에 대한 준수를 강제하는 반면, 이에 대한 조선인의 비판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 특히 민중의 생명, 재산의 보호에 맡겨져야 할 헌병 및 경찰관의 횡포는 언어도단이다.<sup>34)</sup>

조선이 시대착오적인 군인의 지배하에 있고 조선인은 참정권을 갖지 못함은 물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유도 심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白人에 대해 차별대우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조선인, 중국인에 대해서 매우 오만불손하며 그들을 열등시하고 있다.<sup>35)</sup>

우리의 조선통치는 同化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동화란 조선인으로 하여금 帝國의 충실한 臣民이 되게 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인에게 국어 즉 일본어를 강제하고 기타 극단적인 예로서 神道를 조선에 들여와서 神社를 섬기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sup>36)</sup>

흔히들 북한의 김일성 통치양식은 조선시대의 왕조제도, 일제시대의 천황제도,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동시에 물려받은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북한의 주민들은 일제시대를 뒤이어 김일성의 체제를 맞았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관행을

34) 山本美越乃, “조선통치문제 私見,” 「太陽」 제26권 제5호, 1920년, 小野一郎, “제1차대전 후의 식민정책론: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김영호 편, 「일제하 한국사회 구성체론 서설」(서울: 청아출판사, 1986), p. 52에서 재인용.

35) 末廣重雄, “조선자치문제,” 「太陽」 제25권 제9호, 1919년, 小野一郎, “제1차대전 후의 식민정책론: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김영호 편, 「일제하 한국사회 구성체론 서설」(서울: 청아출판사, 1986), p. 55에서 재인용.

36) *Ibid.*, pp. 55~56에서 재인용.

크게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제의 관행이 그대로 북한에 잔존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日本天皇에 대한 숭배의 관행이 북한에서도 상당히 잔존되어 臣民型 人性形成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 2. 經濟的 土臺

해방 이후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북한형 사회주의가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제 2차대전 이후 등장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한국전쟁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의 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엄청난 파괴는 경제관리방식, 권력구조, 사회적 이념적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말까지 전쟁복구과정에 형성된 북한특유의 통치구조, 경제관리방식은 오늘날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sup>37)</sup> 시기적으로도 북한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公式 歷史書로서 총32권으로 되어 있는 「조선전사」는 해방이후의 역사를 구분하면서 해방직후를 민주건설사, 전쟁기간을 조국해방전쟁사, 한국전쟁 이후를 사회주의건설사라고 부제목을 붙일 만큼 한국전

37) 정해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서울: 태암, 1990), p. 241.

쟁 이후를 본격적인 사회주의건설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하였다.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지역 1평방 킬로미터당 평균 18개의 포탄이 투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美國은 북한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파괴된 것으로 발표했다고 한다.<sup>38)</sup> 전쟁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은 1949년에 비하여 1953년에 70%로 감소되었으며 북한이 집계한 전쟁피해 총액은 당시 화폐로 4,200여 억원인데 이 액수는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시기 연평균 기본투자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북한은 추정하고 있다.<sup>39)</sup> 북한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는 이러한 물질적 파괴만은 아니다. 2차대전 이후 전개되던 東西冷戰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격화됨으로써 북한은 전쟁도발국으로 낙인이 찍혀 자본주의권으로부터 철저히 봉쇄당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경제복구는 ‘비상한’ 경제정책을 필요로 했다. 전후복구전략의 핵심은 당시의 주된 산업이던 농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전직후 북한농촌에서는 개인농민경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農村經理의 물질적 토대는 파괴되었으며 農民經理는 매우 영세화되고 농촌에서 축력과 노동력은

3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8」(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5.

39) 「근로자」(1957,4), p. 3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8」(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7에서 재인용.

매우 부족했다. 김일성정권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업협동화를 추진했다. 농업협동화는 1953년 8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한 이후 1954년 11월에 소집된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농업협동화의 확대, 발전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하여 1958년 8월에 완료되었다.

농업협동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미 해방직후 귀속재산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요산업이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협동화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한국전쟁의 영향속에서 농업협동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다.<sup>40)</sup>

전후 북한에서는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주요 요소중에서 국내에서 풍부하다는 것은 노동력 뿐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sup>41)</sup>을 중심으로 인민들을 교양개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한에서는 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전략을 채택하여 대외개방형 발전전략을 채택했지만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봉쇄되고

40) 정해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서울: 태암, 1990), p. 255.

41) 주학석,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자」 (1969.1), pp. 40~45.

사회주의권으로부터도 점차 원조가 거부되어 자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완전히 파괴된 물적 조건속에서 전후복구를 위해서는 온 인민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도리밖에 없게 되었다.

김일성이 자립경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창한 구호가 바로 ‘자력갱생’이었다. 이러한 사상자극적인 방법에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이 사상자극적인 방법에 의한 노력동원과 생산성 제고에로의 구심점을 찾게해주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그 체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면 계속 동태적인 대규모의 대중동원과 교화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주체사상이 이와 같은 대중동원 및 교화를 위한 규범적, 심리적 요소로 기능했던 것이다.<sup>42)</sup>

주체사상은 대중동원을 위해서 전 인민의 노동동원을 위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속도전 등이 발전되어 50년대 후반 이후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고,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전후 경제적 토대와 경제복구전략이 북한주민의 인성변화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업협동화 및 개인상공업의 국유화는 경제관리방식을 완전히 집단주의

42) 박상섭, “주체사상 비판연구에 관한 비판적 내용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北韓統治 이데올로기 研究-그 現況과 方向」(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 300.

적 방식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본질은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명령, 지시, 동원에 의한 수동적 행위로 변모하게 되었다. 인간행위의 주된 내용이 하루 8시간이상 주어진 직업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행위라고 볼 때 경제관리방식의 조건은 인성변화에 가장 중요한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명령형 경제체제하에서는 자율성, 창조성이 아니라 복종형, 묵종형 人性이 理想的인 人性이 된다. 存在가 意識을 결정한다는 명제와 같이 명령형 경제는 복종형 의식을 가치로운 것으로 사회화하는 상부구조를 발달시키기 마련이다.

둘째, 북한에서 1958년 까지 모든 부문에서 생산수단이 국유화됨으로써 재산과 잉여가치에 대한 개인의 처분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국가소유의 경제체제는 국가지배의 인성유형을 창조한다. 자본주의에서 처럼 자기노동의 대가로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특히 김일성 수령의 시혜로 주는 물건을 소비하는 것으로 교육받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다. 북한에서는 식량마저도 시장메카니즘이 아닌 배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철저히 사상통제를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인민이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을 김일성 수령이 주는 선물로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물과 생필품이 자기가 노력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자기가 구매하기 때문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노력의 덕분으로 인식된다. 다같은 시간노동하는 인간이 생필품의 분배제도에 따라서 엄청난 '幻影'(illusion)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물질 생산의 수단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상징적 생산의 수단

도 소유한다는 명제를 수용할 때<sup>43)</sup> 북한에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는 자본주의에서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의 결혼식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었다는 텔레비전과 같은 선물에 감격해하는 영상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 돈을 저축하여 구입하든지 결혼선물로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지도자나 지도체제에 대하여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체제에서 國家所有와 配給制의 방식은 臣民型 人性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중앙계획생산과 중앙통제의 분배 메카니즘이 人性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메카니즘은 곧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가격에 기초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명령경제는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경쟁이 없고 수직적 관리체제에 대한 복종(compliance)만 하면 된다. 남을 속일 필요가 없고 남을 이기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에 접하여 복잡한 손익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마치 가족을 자급자족적인 경제단위로 하는 농경사회에서와 같은 순박하고 묵묵한 人性을 창출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북한주민의 인상이 순박하다는 관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경제적 토대에 기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저항하기 보다는 자

---

43) Marx and Engels, *The German Ideolog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65), p. 61.



發的 同意(consent)를 한다는 점에서 臣民型 人性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주민이 북한식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정당하다고 동의한다는 데는 상반된 견해들이 있으나<sup>44)</sup> 1960년대를 전후해서는 확실히 인민의 동의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의 동의를 획득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이 겪은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대량 파괴이후 50년대 후반의 급속한 경제 복구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1957년~1961년으로 계획되었던 5개년계획은 1년을 앞당겨 달성하고 1961년 9월에 제4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대회 보고에 의하면 1957~1960년 사이 4년동안에 공업총생산액은 3.5배로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서 생산수단 생산은 3.6배, 소비재 생산은 3.3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에 전력공업은 1.8배, 연료공업은 2.8배, 광석 채굴업은 2.6배, 야금공업은 3배, 화학공업은 4.5배, 기계제작공업은 4.7배로 각각 늘어났으며 이 기간에 공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속도는 36.6%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업총생산에서 기계제작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56년의 17.3%에서 1960년에는 21.3%로 높아졌으며 기계설비의 국내자급율은 46.5%로부터 90.6%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sup>45)</sup>

44) 여기서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전개되었던 경쟁파벌에 대한 대숙청과 같은 공포분위기가 주민들의 동의를 강요했다는 견해를 말함.

4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74~77.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난날에 뒤떨어진 식민지공업국가였으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되었던 북한이 오늘은 자립적 경제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헐벗고 굶주렸으며 문명세계에서 동떨어져 무지와 몽매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주인으로, 지식있고 문명한 사회의 건설자로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이 세계적 략후와 빈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성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sup>46)</sup>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은 확실히 전후 경제복구를 통하여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 요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의식과 물질적 관심의 결합이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김일성의 표현에서도 관찰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노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이에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 자극을 반드시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합니다. ...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의 정당성은 우리 근로자들의 전례없는 로력적 양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로동을 즐기며 로동을 가장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서로 도우면서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공산주의

---

46) *Ibid.*, p. 193.

적 도덕의 미풍이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sup>47)</sup>

전후 복구기간동안 사회주의의 일정한 성과와 경제토대의 성장은 사상과 사회통합에서 일대 양양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김일성 정권은 대중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신과 신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8)</sup> 북한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臣民型 人性이 형성되었고 또 강화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구조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나 그러한 구조를 정당화했던 경제적 고도성장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변화가 북한주민의 인성변화에 미칠 영향은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 3. 思想的 體系

人性의 일부가 세계관 또는 의식구조를 포함한다고 할 때 북한사회의 지배이념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는 人性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북한사회에서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그것이 주민의 인성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김일성은 공산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가 결코 높지 않음을 깨달았다. 국제연합군과 한국군이 북상했

47) *Ibid.*, p. 198.

48) *Ibid.*, p. 195.

을 때 북한주민의 다수가 이들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나 당원의 색출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주민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정권은 휴전 직후부터 정치교화사업을 벌여나갔다.<sup>49)</sup>

김일성은 인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당시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인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김일성은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일 이러한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인민정권이 반드시 인민들과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김일성은 관료주의는 무엇보다도 일제 사상잔재 및 낡은 봉건적 사상잔재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조선인민은 근 반세기 동안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권을 가져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정권을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정권기관에 참여하여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극소수의 친일파였으며 간혹 늙은 사람중에서 과거 리조봉건정권에 참여하여 본 극소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다수 우리 일군들이 보고 들은 것은 일본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관료경찰식 방법으로 조선인민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제통치기관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히 일제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우리의 일부 간부들은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며 해설하고 설복하는 방법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하고 강압하여 인민들과 리탈하고 있습니다.<sup>50)</sup>

49)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p. 354.

50) 김일성, “현단계에 있어서 지방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反美도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북한은 ‘미군의 재침’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미제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위해 주민들은 언제나 깊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아래의 인용이 이 사실을 잘 예시하여 준다.

오랫동안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사상의식은 대단히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 40년동안에 걸친 일제의 통치는 많은 조선사람들의 의식을 중독시켰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에 비록 짧은 동안이나 미국놈들은 우리사람들의 머리속에 사상적 독소를 뿌려놓아 많은 사람들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sup>51)</sup>

사회통합의 또 하나의 소재는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체제저항세력인 지주, 자본가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 억압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은 당시의 김일성 정권의 社會統合 政策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제국주의의 주구이며 그 세력을 부식하는 주구지주, 예속자본가들과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자체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우리 인민정권

---

(1952년 2월 1일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지도일군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5~37.

51) 김일성, “당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여 단결시키는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5~16.

은 근로대중의 선봉대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인민과 조국전선산하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자기주위에 결집하여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수인 민족반역자, 친일파, 친미파, 예속자본가, 지주를 대표하는 리승만반동파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을 전개하며 조선의 완전독립과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현단계에 있어서 자기의 기본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스탈린동지는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자기앞에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혁명에 의하여 전복되고 수탈된 지주와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온갖 시도를 청산하여야 하며, 둘째로 모든 근로자들을 프로레타리아 주위에 집결시키는 정신으로 건설사업을 조직하며 또 그 사업을 계급들의 청산과 폐절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셋째로 외적들과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의 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우리당과 인민정권은 스탈린동지가 지적한 이 원칙을 지침으로 삼았으며 또 삼고 있습니다.<sup>52)</sup>

한국전쟁이 3·8선을 중심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무렵부터 김일성은 주민의 사상통제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52년 12월 15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행한 보고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문헌이 발표되었고 이 문헌은 휴전직후부터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문헌 재토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상교양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북한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상교양정책의 시발점이다. 이 때의 사

52) 김일성, “현단계에 있어서 지방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pp. 28~29.

상사업의 내용은 맑스-레닌주의를 교양하는 것이었다.

사상사업의 기본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습니다. ... 공산주의 사상은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현대사회발전의 근본요구를 반영한 가장 선진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승리적 진출은 죽어가는 자본주의의 야수적 발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에게 자기들의 부패한 사상을 침투시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의 사상적 공세가 현재와 같이 그렇게 악랄한 성격을 띠여본 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적이고 부패한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여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인민을 제국주의의 사상적 침해로부터 수호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sup>53)</sup>

이후 1955년부터 맑스-레닌주의는 점차 김일성 사상 또는 주체사상으로 대체되었으며 유일사상 교양은 더욱 강화되었다.

주체사상은 우리당의 지도사상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 기초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입니다.

53)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저작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23~24.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 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sup>54)</sup>

이렇게 북한의 주민들은 점차 주체사상만을 유일한 가치의 기준으로 교육받게 되었다. 그밖의 다른 사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잡사상, 종파주의로 금지되었다. 북한에서는 특히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 당건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合法則的 要求라고 보았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안에 그와 어긋나는 그 어떤 잡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결합된 강철의 대오로 만들 수 있게 한다. ... 종파주의는 부르조아 및 소부르조아적 사상, 특히 개인영웅주의, 공명출세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쪼먹고 파괴하는 해독적인 사상이다.<sup>55)</sup>

북한사회에서 사상의 유일적 획일화는 조선시대에 유교만이 유일한 가치의 기준으로 된 것과 유사하며 서양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기독교가 인간생활을 총체적으로 지배했던 것과도 유사하다고

54) 김용학,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불패의 원천,” 「근로자」(1980.9), p. 19.

55) *Ibid.*, p. 20.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배사상이 북한주민의 人性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 집단주의적 人性이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쟁후 계급적·계층적 성분의 혼란속에서 인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원칙이 군중노선과 통일전선전략이었으며 집단주의를 극도로 강조하였다. 둘째, 유일사상의 풍토에서는 다원주의적 사상과 개인의 자율은 금지되며 따라서 市民社會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다. 市民社會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그 결과는 臣民社會가 특징적이기 마련이며 臣民型 人性이 형성될 것이다.

#### 4. 政治的 要因

북한주민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미친 정치적 요인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또는 신격화 및 수령-당-대중의 集團主義 體制가 인민들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둘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민에 대한 억압적인 査察制度, 統制制度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북한의 정치적 토대는 유일적 수령 개념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총서 중의 하나인 「영도체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광범한 균증을 묶어세워 하나의 목적실현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영도자, 수령을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 전반에 대한 그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 만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투쟁에 참가하는 수백만 근로대중을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 수 없으며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 나갈 수 없다. 또한 지도에서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 수 없게 되고 지도에서 비조직성과 산만성을 면할 수 없게 된다.<sup>56)</sup>

북한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령-당-대중의 집단주의 체제를 발전시켰다. 수령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단결하고 당은 수령의 사상을 정책화하면서 이를 실천해나가는 영도적 핵심체로,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를 받으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충실히 실천해나가는 주체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수령, 당, 대중은 삼위일체이며 삼위가 일체로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를 형성한다는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이론에 기초해 있다. 수령, 당, 대중중에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수령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중심의 두리에 단결시키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사업은 오직 노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철저히 실현되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

---

56) 사회과학출판사 편,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9 (서울: 지평, 1989), p. 49.

로 단합되게 될 때 전사회는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로 조직화되게 된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실현되면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됨으로써 완전한 행동통일이 실현된다.<sup>57)</sup>

수령은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 적성, 한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영도자이며 혁명투쟁에서 쌓은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가지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참다운 인민의 영도자라는 것이다.<sup>58)</sup>

수령은 신격화되어 절대적인 權力과 절대적인 善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 1987년경부터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史實化하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구호나무에 “김일성령수는 조선의 하늘님, 이천만 일심으로 김대장 받들자”, “김일성령수는 만백성의 하늘님…” 등의 구호가 새겨져 있다고 소개하여 마치 김일성이 해방전부터 ‘하느님’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선전하였다. 북한이 최근 대중잡지 「천리마」에 또다시 김일성을 ‘하느님’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일성령수는 조선의 하느님”이라는 제목의 이 글의 요지는 예로부터 인류는 불행과 고통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지상천국을 가져다 주는 은인을 하느님이라고 일컬어

---

57) *Ibid.*, p. 53.

58) *Ibid.*, p. 35.

왔는데 김일성이 북한주민에게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 글에 의하면 “수천년 세월 무지와 몽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인민들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고 자기들을 망국의 운명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는 ‘하느님’밖에 없다고 믿고 이를 숭배하고 빌고 또 빌었으나 ‘하느님’은 독립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영도자를 목타게 기다린 이천만 겨레앞에 나타난 이는 바로 김일성장군이었다”는 것이다.<sup>59)</sup>

神格화된 수령 밑에 있는 당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정치적 영도기관이다. 영도기관으로서의 당은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첫째, 노동당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이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수행하기 위하여 당과 함께 여러 가지 형태의 혁명조직들을 창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청년단체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들과 군사조직들이 포함된다. 노동계급이 주권을 전취한 다음에는 국가조직이 또한 여기에 속한다.

둘째, 노동당은 혁명과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사업을 조직지휘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혁명의 참모부는 오직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사상을 가장 정확히 관철할 수 있고 수령의

59) 「내외통신」, 7956호, 1992. 7. 29.

직접적인 영도밑에 혁명과 건설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연한 지도체제와 조직기구를 가지고 있다.<sup>60)</sup>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당과 함께 당의 영도 밑에 노동계급의 국가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한다. 노동계급의 국가정권은 행정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수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한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배적인 원칙은 중앙집권제이다. “중앙집권제는 아래기관은 윗기관에 복종하고 윗기관의 결정,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복종하고 중앙기관의 통일적 지도밑에 움직이며 모든 국가기관들은 수령의 명령,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움직이는 것”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sup>61)</sup>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하며 조직사상적으로 통일 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의 영도가 결합될 때만이 혁명(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때 영생하는

60) *Ibid.*, p. 112.

61) *Ibid.*, p. 154.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어디까지나 대중의 한 성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령에 대한 이러한 最高善的인 해석에서 헤겔의 국가개념의 영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철저히 전체주의적 시각에 기초하여 있으며 개인의 영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生物學的 有機體論에서 처럼 개인은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개인은 조직속에 결합될 때 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이 부여된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정치사상적 구조속에서 사회화되었다. 즉, 개인은 사회정치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臣民이다. 자유로운 市民은 결코 아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두번째 특징으로서 북한주민의 人性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엄격한 사찰제도, 주민통제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존경과 복종은 유아기부터의 정치사회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며,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전쟁 이후의 급속한 경제복구 등의 정치적 업적도 작용했지만 사찰제도를 통한 강제도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인 복종과 존경에 기인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양식의 철저한 주민통제 및 사찰의 기구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찰기관과 주민통제의 엄격성,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인민반, 5호담당제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많기 때문에<sup>62)</sup> 여기서는 언

62) 도홍렬, “북한의 사회통제, 사회문제, 그리고 사회변동,” 민족통일연구원 편, 『北韓體制的變化: 現況과 展望』(서울: 민족통일연

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과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주민감시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1년 9월에 청진에 사는 조카의 집을 3박4일 동안 방문한 바 있는 재미교포 이은일의 증언은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철저한 감시 속에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안방에서 대화도중 조카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안방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건넌방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집안 내에서 마저도 누가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외부의 감시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또 이은일씨가 15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내원이 1:1로 수행하여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로부터도 북한사회의 주민에 대한 감시 체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체코에서 유학하다가 1989년에 귀순한 조승군의 증언에 의하면 어른들로부터 밖에 나가면 말조심하고 특히 술먹고 말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북한에서 국가자연기술과학원 산하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일하는 기술직 노동자로 있다가 1988년에 귀순한 어승일은 북한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곧 공포정치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북한사회는 겉으로는 새깃털처럼 보드랍지만 속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우니 주의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그는 또 군에

---

구원, 1991); 유석렬, “[북한 사회의] 일탈: 원인·유형·통제방법,”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서 같이 근무하던 한 동료가 행군도중에 “쭉정이를 보니 올해도 또 흉년이구나”라고 말했다가 보위지도원으로부터 “대중들이 많은 마당에서 주체농법을 헐뜯었다”고 비판받고 탄광으로 끌려간 사례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공장노동자로 일하다 귀순한 최봉례는 사찰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동, 반의 주민들이 집합한 장소에서 기관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공개적으로 하달받고 잡혀간다고 증언했다.<sup>63)</sup>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서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매우 체계화되어 있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요인들이 人性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수령은 일제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라는 ‘天皇’ 이상으로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숭배와 복종은 당연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인은 전체주의와 수령, 당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만이 생명이 부여되는 전체의 부품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개인은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및 철저한 주민 감시체제하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는 원칙하에서 사회화를 경험하고 全體主義와 服從主義가 가치로운 덕목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절대자’에 대한 복종은 臣民性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臣民性이 지배적인 市民性(citizenship)의 개념은 없다. 시민성의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

63) 이 증언내용은 필자가 귀순자들과 1992년 7월 22~23일에 가진 인터뷰에서 청취한 것임.



이 아니라 집단에 있으며 그것도 수령과 당에 유기적으로 결속될 때만 그렇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는 집단에도 시민성이 없다. 집단인 黨도 김일성에 대한 臣民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權力엘리트의 性格

북한주민의 人性形成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사회구조적 조건은 엘리트들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엘리트들이 여론형성의 지도자들이며 사회전체의 인성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때 지배엘리트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북한주민의 人性의 이해에 중요하다. 북한사회에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인적 토대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김일성에 충성하는 혁명엘리트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60년대 말까지 政敵 숙청과정을 통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갑산파 빨치산 집단 등 친김일성 세력만 남고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 다른 모든 정치집단은 제거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러한 파벌을 제거하는 방식이 암살 등과 같이 비밀리에 취해진 것이 아니라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 등의 사상적인 죄명을 씌워 공개적으로 숙청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포적인 정치분위기는 김일성에 대한 복종의외의 가능성은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는 사상에서 유일사상만 존재하듯이 인적인 측면에서도 김일성에 복종하는 엘리트만 유일적으

로 존재한다. 즉, 김일성의 臣民만 파워엘리트로 남아있다. 또 7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혁명 2세가 파워엘리트로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혁명초기보다 이념을 더욱 강조하면서 기능엘리트가 이념으로 무장한 질라스형의 이중적 엘리트가 지배적이다.<sup>64)</sup>

둘째, 역으로 북한사회에서 엘리트가 되는 데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요약되는 黨性이 곧 지위상승의 메카니즘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당성이란 곧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복종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위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臣民型의 人性을 내면화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유교적 가치를 지배적 가치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인 과거시험이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듯이 북한사회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엘리트 등용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忠實性을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지배 엘리트의 성격과 지위상승의 메카니즘인 엘리트 층원의 제도적 장치하에서는 다양한 이념이나 가치가 생성될 수 없다. 북한사회에서는 인적 토대면에서도 臣民型 人性이 형성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64) 도홍렬, “엘리트 형성과 순환,”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219~247.

## 第 V 章 人間改造事業

지금까지 臣民型 人性을 발달시킨 사회구조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북한사회에서 臣民型 人性을 발달시킨 직접적인 정책적 기제는 인간개조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은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병행하여 인간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주의적 제도가 서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초는 없어지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되며 그 부작용도 계속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 조건하에서는 부르조아적 영향이 사회생활에 널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다. 오직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만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막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sup>65)</sup>

65) 김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 「근로자」(1978.4), p. 19.

인간개조이론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에 관한 완성된 과학적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sup>66)</sup> 인간개조이론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노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sup>67)</sup>

사상교양, 계급교양은 195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연설에서 발견되지만 인간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11월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 부터이다. 「조선전사」는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공산주의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처음으로 뚜렷이 밝힌 고전적 문헌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겨 수행해나가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 문헌”이라고 평가했다.<sup>68)</sup>

66)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2.

67) 김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 p. 19.

인간개조사업의 목적, 내용, 방법이 종합되어 정리된 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6권'으로 1985년에 출판된 「인간개조리론」이다. 인간개조의 실제 목적은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인간개조의 내용의 기본은 주체사상교양이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노동을 사랑하는 교양이다.<sup>68)</sup> 인간개조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상개조이며 인민을 김일성의 臣民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사상전에서는 수령님의 교시, 당의 의도대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 첫공정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의 사상은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양식이라고 본다.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인간개조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것이다. 우리당과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노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

6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9」(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76.

69) 김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 p. 23.

고 노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노동계급을 사회의 어느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하고 공산주의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으로 보고 노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영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농민과 인테리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교양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70)</sup>

인간개조 방법은 긍정의 교양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이 제도 자체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로 하여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될 수 없지만 착취와 억압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려져 있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한 것으로 지향하며 온 사회에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긍정적인 모범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겨내도록 끊임없이 고무하며 도와주는 것이 사회주의하에서 사람을 개조하는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sup>71)</sup>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북한은 모범따라배우기, 숨은 영웅따라배우기 운동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절대로 공적으로 발표하거나 노출시키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공개하고 있다.

인간개조사업의 결과 북한주민은 어떠한 人性을 갖게 되었

70) 「인간개조리론」, pp. 102~138.

71) 배용화, “긍정교양은 사회주의하에서 균중교양의 기본방법,” 「근로자」(1973.12), p. 38.

겠는가? 人性은 곧 社會的 產物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교육제도, 철저한 조직생활, 일상생활에서의 감시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주민은 대체로 '김일성의 의도대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사회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 第 VI 章 北韓社會 臣民型 人性의 下位類型

앞에서 우리는 북한주민의 人性이 臣民型 人性이라는 사실을 북한의 사회구조적 조건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했다. 이 章에서는 이러한 人性의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 北韓小說과 歸順者들의 증언을<sup>72)</sup> 근거로 연역적으로 도출된 人性이 유형들이 북한의 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檢證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신민형 人性은 다음과 같은 하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家臣主義, 權威主義, 集團主義, 排他主義, 家族的 温情主義, 受動性, 二重性 등이 그것이다.

### 1. 家臣主義

家臣主義(clientelism)는 家父長主義(paternalism)와 동전의 양면이다. 가부장주의에서 지배자는 主人(patron)이며 피지배자는 家臣(clientele)이다. 따라서 가부장주의가 지배적 이념으로 피지배자의 동의를 받는한 피지배자는 가신주의의 人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Ionescu는 스탈린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家臣(captive clientele)에 불과하다고 보았다.<sup>73)</sup>

72) 귀순자들의 증언을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앞의 서론 참조.

73) Ghita Ionescu, "Patronage under Communism," eds. by Ernest Gellner



家臣主義는 신민형 人性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가신주의적 속성을 가지는 까닭은 첫째는 유교적 영향이며 둘째는 북한의 김일성 정치체제의 영향이다. 북한에서 개인은 김일성 ‘絶對君主’의 家臣 또는 충직한 종이다. 이것은 인민들의 모든 문제는 수령의 시혜와 보살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인민들은 수령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신주의는 북한체제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소유제와 식량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의 배급제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조직의 원리는 한 단편소설 「그날의 항로」<sup>74)</sup>를 통하여 확인된다.

산골 오지에서 발생한 긴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한 의사 윤석현에게 “천리밖 외진 산정에 누워있는 한 노동자의 신상을 걱정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다.

윤선생, 꼭 살립시다. 그 동무가 얼마나 기특합니다. 그 기계공 동무는 온 조국땅에 구석없이 밝은 햇빛을 안겨주시려는 수령님과 당의 뜻을 받들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하루와 같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당의 뜻대로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인민을 위해 충실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윤선생, 부탁드립니다. 꼭 그 동무를 살려냅시다.<sup>75)</sup>

and John Waterbury, *Patrons and Clients* (London: Duckworth, 1977), p. 98.

74) 최창학, “그날의 항로,” 「조국해방 40돐 기념작품집, 승리의 아침」 (평양: 문예출판사, 1985).

의사 윤석현은 “이름없는 한 노동자의 신상을 걱정하는” 김정일의 따뜻한 관심에 감격하면서 지도자 동지께서 그 환자를 전부터 잘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다. 김정일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라가 하나의 큰가정이라면 공민은 그 안의 한 식구인데 알고 모르고가 있습니까. 그 동문 우리나라의 한 공민입니다.<sup>75)</sup>

여기에서 국가는 하나의 큰 가정이며 인민은 그 가정의 공민 또는 한 식구로 定義된다. 한 가정내에서는 지도자가 큰 은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민들은 그 은혜를 받고 존경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의 사례를 다른 소설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딸 은경이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 감사하는 은경이 어머니 역시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여기며 대가정의 품에서 행복해 한다는 주제를 담은 소설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너무도 많았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내 왜 보지 못했을까.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 속에 사는 행복을 오늘에야 더 뜨겁게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럽구나. ... 은경아, 너는 이제 다 자랐구나! 아버지 원수님의 딸로, 당의 딸로 자랐구나! 아, 나는 네가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못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정말 너도 나도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는 살아도 당의 품을 떠나서는 못산다. 아, 이제보니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75) *Ibid.*, p. 57.

76) *Ibid.*, p. 57.

행복한 품에 안겨 살았구나!”<sup>77)</sup>

‘대가정’이라는 논리하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은 하나의 家父長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피지배자인 북한 주민들은 가부장이 베푸는 자애로운 온정의 댓가로 그 가부장에게 충성을 바치는 家臣이다. 가신으로서의 북한주민들은 主人으로서의 김일성에 대한 囚人에 불과하다. 행동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김일성의 의도대로 하도록 규정받고 있다. 「인간개조리론」에 제시된 한 주장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매 사람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는 모든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혁명임무 수행에서의 성과는 수령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철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sup>78)</sup>

북한의 가신주의 人性은 또한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정치적 슬로건에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참다운

77) 최국희, “밝은 웃음,” 「청년문학」 (1990.4), p. 50.

78)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론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73~74.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필수적인 사상정신적 양식이다.”<sup>79)</sup>

북한의 소설에는 이러한 가신주의가 매우 자주 주제로 등장한다. 많은 소설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베풀어주는 은혜(paternalism)에 인민들이 감동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家臣主義의 내용이 반복된다. 이러한 예를 몇가지 더 보기로 한다.

단편소설 「푸른 꿈」은 농장에서 일하는 ‘연구사’ 명숙의 열성과 헌신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서 명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성과 효성을 따라 배우자」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맹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는 지도자 동지를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금방 얼어드는 것 같구나. …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들어가 뜨르르한 직위를 가지면 그에 만족하여 한생을 즐길 사람도 있으리라고 봐. 하지만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우리들을 요람속에서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고이 키워 내세워 준 은혜로운 당과 수령님께 말이야. 이길에서도 청춘도 희망도 아니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말이야.<sup>80)</sup>

당과 수령에 대한 명숙의 맹세는 다음과 같은 언술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당과 수령에 대한 청춘과 희망, 한생을 다바쳐 충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충성은 전통적 가부장주의의 덕목인

79) *Ibid.*, p. 173.

80) 김은석, “푸른 꿈,” 「청년문학」 (1991.10), p. 46.

‘효성’ 혹은 ‘의리’와 같은 가치와 동일시되고 있다. 셋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은 ‘요람속에서 잠재워주고 떡여주고 고이 키워 내 세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즉 주인에 대한 충성은 주인이 제공하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댓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술구조는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家臣主義의 구체적 내용인 동시에 家臣主義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인과 가신사이의 ‘사회적 교환 메카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기로 하자. 단편소설 「생의 축복」의 주인공 설순은 산모, 세 쌍둥이 신생아들의 건강과 생을 축복하는 김정일에게서 ‘따스한 온정과 자애로운 영상’을 발견한다. 이 대목 역시 김정일을 ‘어머니’로 定義하는 북한주민들의 家臣主義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설순은 그저 꿈꾸는 듯한 황홀한 눈길로 인정깊고 덕스러운 그의 존안을 우러러볼 뿐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짐을 그는 느꼈다. 어머니들을 가장 존중하시는 분, 아니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이 위대한 분을 무슨 말로 부르고 무슨 말로 칭송해야 할까. 설순은 아직까지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그럽고 가장 친근한 이름이 어머니란 말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sup>81)</sup>

북한주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온정에 감동하여 충성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단편소설 「운명」은 “초기혁명활동 시

81) 김정민, “생의 축복,” 「문학작품집 1985」(평양: 문예출판사, 1987), p. 24.

기의 동지를 기억하고 찾는 김일성의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기억력과 뜨거운 의리”가 한 여자 투사를 목이 메이도록 감격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은정 깊은 사랑속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숭고한 뜻이 어려 있다. 그렇다. 그이께서는 자기자신보다 혁명전우를 더 귀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다. 아, 혈육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순간인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랴...아, 저 빛발이 가닿은 끝은 과연 어디인지... 그렇다. 세기와 세기가 아무리 흐른다해도 무한대의 우주를 다 알 수 없듯이 해빛이 가닿은 계선과 끝이 어데 있으랴. 그 빛발 속에 세상 모든 만물이 생을 즐기고 복을 누리고 있으니 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영원한 삶의 그 품은 정녕 위대한 태양이 아니던가!<sup>82)</sup>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은 나라를 찾아주고 땅을 나누어준 생존과 안전의 보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에 충성하고 스스로를 김일성의 가신으로 인식하는 家臣主義의 人性을 가지게 된다. 다음은 그와 같은 북한주민의 人性을 잘 보여주는 단편소설 「평양엄마」의 한 대목이다.

윤씨에게 해방은 온갖 시름을 가셔주고 웃음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토지개혁법령을 내려주신 것이다. 없던 땅이 생기고 것처럼 모질고 악착같던 지주도 없어졌다. 윤씨는 이때부터 기를 펴고 발편잠을 자게 되었다.<sup>83)</sup>

82) 김응호, “운명,” 「조국해방 40돐 기념작품집, 승리의 아침」(평양: 문예출판사, 1985), p. 41.

83) 안길성, “평양엄마,” 「청년문학」(1992.2), p. 66.

김일성이 생산현장을 찾아 기술지도, 운영방법, 개인적인 고민 등에 이르기까지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하며, 생산목표달성을 위해 결혼을 미룬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는 내용을 그린 단편소설 「사랑의 길」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날짜를 미루지 말고 결혼잔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산목표달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북한사회의 일상적 통념에서 볼 때 대단히 파격적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러한 파격성이야말로 김일성의 家父長的 温情主義를 더욱 빛나게 하고 김일성에 복종하는 북한주민의 家臣主義를 더욱 강화하는 것 같다.

수령님께서서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용해공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면서 이달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았겠다고 치하해 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부족하신듯 맨 나중에 서 있는 한 젊은 용해공의 손을 잡으신채 일이 힘들지 않는가, 언제부터 용해공이 되었는가, 가족은 몇인가, 나이는 몇살인가, 하고 가정형편까지 일일이 물어주셨다. <그런데 왜 아직 장가를 못갔소? 30살이면 노총각이란 말을 듣겠는데...> 젊은 용해공이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서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재차 물으시었다. 그러자 작업반장이 그를 대신하여 자랑스럽게 대답올렸다. <약혼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달 계획을 해낸 다음 잔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놓은 잔치날을 뒤로 미루고 오늘까지 혁신의 앞장에 서서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각깊으신 눈길로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반장에게 물으시었다. <그런 동무들이 또 있습니까?> <우리 교대에는 룡팔 동무뿐이고 2교대에 송아바이가 있습니다> <그 아바이도 대사를 미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쫓겨 모임때 지배인 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배인 동무가?> 수령님께서서는 리근 지배인이 그런 일을 칭찬하고 평가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셨

다. 사람의 한평생에서 한번밖에 없는 대사를 미루게 하다니? 그걸 미루자면 얼마나 많은 가정적인 문제들이 야기되는지를 지배인이 모른다 말인가? 그걸 잘한일이라고 조장할 수 있겠는가?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이 무거우셨으나 그이상 따져 묻지 않고 룡팔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시었다. <날자를 미루지 말고 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소.><sup>84)</sup>

단편소설 「봄 하늘」은 광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일성의 인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이와 같은 김정일의 배려에 대해 아버지와 같은 온정을 느끼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밤에 평양에서 이곳 동해안 지구로 달려온 주현민은 이 순간 수십년 헤어져 살던 어머니를 만나뵙는 어릴적 심정에 휩싸였다. … 세상에 우리의 지도자동지처럼 광부들을 위하시는 분이 또 어데 있는가! 그이께서는 령도자이기 이전에 그들의 동지시였고 광부이시였다. 아니 어머니시였다. 세상 어머니들 중의 어머니시였다.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일하는 그 천리 깊은 땅속까지 찾은 적이 있고 제자식이 며칠밤 막장에서 세운 것을 두고 것처럼 가슴 아파하신 어머니가 있는가!<sup>85)</sup>

단편소설 「높은 산마루」는 적에게 끌려간 사람의 아들에 대한 당의 온정주의적 시혜와 그것에 감동, 충성을 다짐하는 아들의 모

84)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4), p. 9.

85) 서성룡, “봄하늘,” 「청년문학」 (1990.10), p. 11.



습을 그린 소설이다.

학교를 마치고 운전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당을 믿고 살아갑시다. 당은 적에게 끌려간 사람의 아들인 저를 어떻게 길러주었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고 있었다. <그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면서 저에게서만은 돈을 받고 공부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무상치료를 하면서 우리에게서만 약값을 받았던가요? 남들과 똑같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었으며 병나면 치료해주지 않았나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늘 말씀하셨지요.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또 그에 한생을 바쳐 보답해야한다고 말이에요. 남 같지 않은 처지에 남같은 대접을 받고 보니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 역시 당의 은혜에 고마와 한다. <어리고 여린 아들을 키워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고마운 당이었다. 오늘은 그 아들을 굳게 믿고 기업소의 가장 큰 일감을 서슴없이 맡겨준 뜨거운 품이었다. 이 고마운 당과 조국에 기꺼이 보답하려는 아들의 소행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그것이 잘되기를, 그 아들을 힘껏 도우려고 이처럼 령길을 걷는 성녀였다...> <그렇다, 당은 이 높은 산정우에 대형 권양기가 아니라 한 인간을 올려세웠다. 그 값높은 삶의 평마루 위에 아들을 올려세운 것은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없이 위대한 어머니 당이었다.<sup>86)</sup>

단편소설 「생의 노래」는 전쟁에서 팔을 하나 잃은 영예군인의 집을 방문하여 생활을 걱정하는 수령의 온정주의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86) 신락선, “높은 산마루,” 「청년문학」(1990.9), pp. 38~43.

〈배급쌀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배를 굶으면서 절약해서는 안됩니다. 된장, 간장은 제대로 공급됩니까?〉 〈영예군인들한테는 무엇이나 풍족하고 불편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부엌에 세면대를 설치해주고 수도꼭지만 틀면 어느 때든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도를 놔줘야 하겠습니다. 한팔을 가지고 세면을 하자니 오죽하겠습니까. 방문과 부엌문도 쉽사리 여닫기도록 잘 손질해주시오. 들찌귀에서 소리나는 걸 보니 문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김일성의 온정주의적 사랑에 영예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 없이 자애로운 모습이 밝게 빛나는 것을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에 치밀어 올라 경건히 머리를 숙인다.(괄호안-필자) <sup>87)</sup>

「자애로운 스승」이라는 단편소설에서 김정일은 김일성 수령을 부모에게 바치는 효성과 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모셔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가르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전통적 유교, 가부장주의의 덕목인 孝誠과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가신주의도 효성이라는 덕목에 기초하고 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친부모에게 바치는 자식들의 효성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지극한 효성으로 안받침된 충성심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가르침에 주인공 지학규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감격해 한다.) 지학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매무시를 바로 잡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정녕 자신과 모든 건설자

87) 김동호, “생의 노래,” 「청년문학」 (1990.8), pp. 6~14.

들을 새로운 높이의 충성심을 간직한 충신으로, 효자를 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었다. 그는 목청을 다해 외치고 싶었다.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충성의 귀감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를 이어 따라 배우며 받들어나가야 할 거룩한 귀감입니다!> 가슴가득 차오르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하여 눈앞이 뿌옇게 흐리어졌다. 지학규는 뜨거운 것이 글썽거리는 두눈을 습벅이며 떠나면 평양하늘을 우러러보았다.(괄호안-필자)<sup>88)</sup>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길 수 없는” 수령의 은총에 비해 자신의 충성은 너무 보잘것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편소설 「사랑의 길」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돌이켜보면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길 수 없는 하해같은 은총과 가르침을 받아온 자신이건만 그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혁명전사의 의리를 다해온 인간인가! 나는 수령님 앞에 죄를 지어도 대죄를 지은 인간이다. 심장속에 싸늘히 식은 피만이 튀고 있는 나같은 인간은 지배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도덕도 못갖춘 사람이다. 빌자! 위대한 수령님 앞에 엎드려 빌자!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아니 인간이 아니었다고! … 아, 위대한 동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보다 더 행복한 인민이 이 세상에 또 어데 있으랴!<sup>89)</sup>

「인생의 값」이란 단편소설에서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면서 수령의 은혜에 깊은 감회를 느끼는 어머니는 한생을 바쳐 수령에

88) 박경빈, “자애로운 스승,” 「청년문학」 (1992.3), p. 33.

89)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4), pp. 13~14.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다.

효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나. 옛날엔 자식의 덕을 보면 그걸 한생의 값으로 쳤지. 하지만 오늘 어머니들의 한생의 값은 그게 아니란다. 온 나라 인민을 먹여주구 입혀주구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일두 우리 수령님께서 맡아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수령님 심려를 덜어드리구 기쁨을 드리는 일에 어머니들이 한생을 바치는 건 옹당한 도리가 아니겠나. 그게 어머니들의 한생의 값인 것두 갈데 없는 리치이구.<sup>90)</sup>

아마도 북한의 소설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례의 소설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북한의 독자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의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고하도록 교육하기 위한 계몽적 목적의 虛構인가, 아니면 북한 문학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입각한 사실인가?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소설의 내용들이 분명히 너무 계몽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들 내용이 오히려 더 북한의 현실에 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소설의 내용 그대로가 사실이 아니지만 이 내용은 북한주민들이 계몽받아야 할 전형임에는 틀림없으며, 오랜기간 계몽의 결과 이미 상당히 내면화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에서 인용한 소설의 내용들은 북한주민들의 人

90) 김귀선, “인생의 값,” 「청년문학」 (1991.2), p. 37.

性이 家臣主義에 가까운 인성유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2. 權威主義

북한주민의 신민형 人性의 두번째 하위유형은 權威主義이다. 어느 사회에나 권위주의적 요소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서 윗사람에 대한 家臣主義는 곧 아랫사람에 대하여는 권위주의로 연결된다.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곧 사회질서 전체에 권위주의를 일반화하게 되어 주민들의 人性은 권위주의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권위주의의 사회구조적 조건은 첫째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며 두번째는 수령-당-대중의 위계적 관계와 결합하여 매우 견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를 북한에서는 관료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료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人性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전쟁 직후부터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지적되던 것이 아직도 지도부에서 나오는 많은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실제로 관료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치유적 차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의 향기」라는 단편소설은 노동자, 기술자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신의 관습적 생각에 따라 독선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제

강소 지배인을 관료주의자라고 하면서 ‘관료주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군중앞에서 호령을 일삼거나 아래 사람들의 목소리를 덮어놓고 깔아뭉개는 제강소 지배인은 관료주의자이다.”<sup>91)</sup>

권위주의는 농민 등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멸로도 나타난다. 단편소설 「긴등벌」은 농장에 배치되어 논밭을 갈아주기로 되어 있는 트랙터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을 얹잡아보고 대접의 정도에 따라 논밭 갈기를 함부로 한다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의 권위주의적 人性의 표현이다. 북한사회에는 힘이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상대에게는 원칙 없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있다.

동익이는 차츰 일부 운전자들이 농민들의 소박한 성의를 악용하여 대접의 정도에 따라 논밭을 잘 갈아주기도 하고 망탕 갈아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원이가 바로 문제의 현동에 나갔다가 대접을 소홀히 한다고 하여 귀잡이는 갈지도 않고 가운데로만 빙빙 돌며 대충 갈아치우다가 관리위원장의 눈에 띄워 쫓기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92)</sup>

91) 김정, “생활의 향기,” 「공화국창건 40돐 기념 작품집, 보금자리」 (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138.

92) 김삼복, “긴등벌,”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 (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236.

### 3. 集團主義

臣民型 人性의 세번째 하위유형은 集團主義 또는 全體主義, 反利己主義 및 反個人主義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功利主義에 기초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 글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다.<sup>93)</sup>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가 발달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집단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구성원리는 균중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적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북한에서는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간다고 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sup>94)</sup>

93)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97.

94) 강민구,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9.4), p. 55.

집단주의는 최근 주체사상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제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관되어 있다.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생명관에서 개인의 생명, 육체적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그러한 인생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개인의 생명은 태어날 때 생겨나고 죽을 때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라면 개인의 생명으로만 이해하고 그와 구별되는 집단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사회정치적 집단은 자주적 요구를 가지며 개별적 인간의 창조적 힘을 기계적으로 합친 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다운 사회정치적 집단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거기에 영생하는 자주적 생명력이 체현되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체이며 개별적 사람들은 그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 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혈연적으로 연결되며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게 되는 것이다. 육체적 생명은 그 모체에서 떨어져도 생존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그 모체로부터 유리되면 끊어지고 만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다 귀중하지만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보다 더 귀중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sup>95)</sup>

단편소설 「피나무 꽃」은 북한사회 연구원의 연구활동의 모티브이션이 집단주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성공하기를 바라는 나의 논문은 은혜깊은 조국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드리는 것이어야 했으며 내가 받는 학위는 그 값으로 차례지는

---

95) *Ibid.*, p. 56.



당당한 것이어야 했다. …〈제가 무슨 학위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학위를 준대도 저는 필요없어요. 그저 제가 얻은 새콤종 꿀벌로 더 많은 꿀을 따다면, 그 꿀로 갖가지 식료품을 만들어서 온 나라 가정의 식탁마다 듬뿍이 놓아준다면, 정말이지 그렇게 되어 번영하는 조국에 작으나마 보탬을 주어 아버지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뻐하신다면! … 그 이상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것이 곧 제가 받고 싶은 호칭이구 다시 없을 행복이에요.〉 복남은 이제 자기 자료를 넘겨주겠으니 나더러 논문을 쓰라고 했다. 마음속에 자그마한 구김살도 없이 …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썼든 그 논문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양봉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정녕 우리시대 참인간의 명예도, 보수도, 기쁨과 행복도 조국의 끝없는 번영속에 있는 것이었다.<sup>96)</sup>

북한소설은 개인주의적 감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남녀간의 애정까지도 곧 잘 조국애와 같은 共同體的 사랑에 물어버림으로써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 단편소설 「아름다운 삶」은 남녀간의 사랑도 조국애라는 집단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한 자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조국애라는 크고 위대한 감정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또 사랑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sup>97)</sup>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한다. 단편소설 「아름다움을 자랑하라」의 주인공 女性軍醫 김서정은 음악을 사

96) 리근전, “피나무꽃,” 「청년문학」 (1991.3), pp. 22~31.

97) 전명진, “아름다운 삶,” 「청년문학」 (1992.1), p. 38.

랑하는 섬세한 마음을 가진 여자이다. 그녀는 부모의 소개로 피아노 연주가인 미남의 사진을 받는다. 그 남자는 김서정이 평소 이상으로 그리던 남자였다. 그러나 김서정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조국을 위해 눈을 바친' 부상으로 실명한 영예군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게 된다. 女性軍醫 김서정은 이렇게 말한다.

난 그에게 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의 눈을 대신할 수는 있지 않는가? 눈먼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줄 녀성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으랴만 이 의무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sup>98)</sup>

단편소설 「버들개지」에는 여성의 화장도 개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의 사례가 있다. 청년여성들격대에 들어와 생활하기 시작한 주인공이 어느날 화장을 하지 않고 작업장에 나가려 하자 소대장이 그녀를 불러세워 이렇게 말한다.

〈인육동무,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됐어요. 하지만 말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동무는 이제껏 화장이나 몸차림을 자기를 위해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나는 두 눈만이 잔뜩 커졌어. 〈우린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 건설장에서 우리 처녀들격대원들의 단정한 용모가 건설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동문 아마 모를거예요. 생각을 바로 가져요.〉<sup>99)</sup>

98) 김혜영, "아름다움을 자랑하라," 「청년문학」 (1991.9), p. 40.

99) 장옥순, "버들개지," 「청년문학」 (1990.1), p. 17.

비록 가족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당 앞에 한 약속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된다는 집단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소설의 예를 보기로 한다. 단편소설 「처음 본 눈물」에서 영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시험소 기사 박창남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가 보다 일신이 편한 직장인 호텔 설비과 지도원으로 지원하자 영미는 그것을 안일하고 개인 이기적인 목적에서 당과 한 약속을 배반한 것이라고하여 헤어져버린다. 영미는 자기 아버지에게 애인과 헤어지게 된 까닭을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난 그 동무가 어느 연구기관에 조동된다 해도 그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동문 호텔설비과 지도원으로 갔어요. 아버지처럼 연구에 한평생을 바치기가 싫어서... 그런데도 난 그 동무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아버지, 그런 너절한 탈주병을 난 마지막까지 경멸하고 멸시할래요. 아버지, 약속중에 가장 신성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앞에 한 약속이 아닐까요?<sup>100)</sup>

개인의 이익실현이 곧 집단이익이 된다는 功利主義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과는 달리, 집단이익의 실현을 통해 개인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소설의 한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 소설은 바다 자원탐사 시추선에서 일하는 한 연구사의 집단주의 정신에 관한 내용이다.

100) 석남진, “처음 본 눈물,” 「청년문학」(1991.2), p. 44.

〈내가 무엇을 위하여 배웠는가? 가정생활이나 조국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질책하면서 바다로 나왔지요. 연구소에선 한달이 멀다하게 우정 일거리를 만들어 날 붙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리면 애가 처음엔 앉구 다음번엔 기어다니구 또 그다음엔 아빠 엄마 말하구... 집사람은 그 늘어나는 재간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큰 재미로 여기더군요. 그때 마다 난 다음번엔 집사람과 애한테 어떤 기쁨을 가져갈까 하고 생각하며 바다로 나오지요.〉 나는 무엇인가 큼직한 것이 가슴을 쿵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가정생활도 바로 조국을 위한 길에서 더욱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승화되는것이 아니겠는가.<sup>101)</sup>

평생을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온 한 재일동포 노인의 노동윤리 속에서도 집단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단편소설 「그 품은 멀리 있어도」에서 한 노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것이 조국과 수령을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가 퍽 갈아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이 자기의 한 가정을 위해서도 이것저것 오류를 늘리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자기 태를 묻은 어머니 조국을 위해서야 무엇을 아낄게 있느냐. 물론 다른 사람들은 총련일꾼으로 애국적 상공인으로 조국을 위해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허지만 이 애비야 배운게 있냐, 손에 쥘게 있냐. ... 그저 통학버스를 몰고 가면서 애들을 무사히 싣고 다니려는 마음뿐이었지. 난 내가 태우고 다니는 애들이 우리글과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수령님의 아들딸로 자라는 것을 보는게 더없는 기쁨이었다. 참말 은혜로운 수령님의 품, 조국의 품이 있어 내 사는 보람도 큰 것이 아니겠느냐.〉<sup>102)</sup>

101) 김령철, “날바다 우에서,” 「청년문학」 (1990.6), p. 49.

102) 김윤, “그 품은 멀리 있어도,” 「청년문학」 (1990.5), pp. 16~17.

앞에서 집단주의를 반이기주의라고 정의했듯이 집단주의는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특징지어진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금지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하는 타인에 대해서 집단주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단편소설 「절정」은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대학생 리상옥에 대한 동료 학우의 냉혹한 비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문을 들고 나온 학생은 우리 학급민청초급단체선동원으로서 대리석처럼 차가운 인상을 주는 청년이었지만 불타는 듯한 열정적인 목소리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독보 끝에 우리 학급을 대학적인 모범 학급으로 꾸릴데 대한 격동적인 호소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뜻밖에도 내 이름이 말뚱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리상옥동무에 대해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동무는 병치료 때문에 등교를 못한다고 하지만 너무합니다. 이 동무도 우리 학급이 어떤 학급인지 이제는 소문으로라도 들었을텐데 웬만하면 나와서 인사를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이 동무야 말로 규를 밖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집단과 동지들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생각하지않는 동무입니다. 이 한 동무때문에 우리 학급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급에 있을 자격이 없는 동무입니다.> 나에 대한 선동원의 비판은 점점 더 맹목하고 무자비해졌습니다.<sup>103)</sup>

또 고기잡이배의 취사원으로 승선한 한 선원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데 대한 동료선원의 비판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 「나의 수

103) 백보흠, “절정,”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153.

기」에서 우리는 北韓式의 集團主義를 관찰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자기 하는 일에 영예감이 없고 동무들을 생각할 줄 몰라! 영? 동무는 아무래도 비판 좀 받아야겠어.〉 나는 막 속이 끓어 올랐으나 의준 동무의 눈총이 무서워 꺾소리 한마디 못했다. 나는 그날 밤 사로청 모임에서 되게 비판을 받았다. 그날 우리 배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결의실행에 대한 총화모임이 있었는데 총화 뒤끝에 사로청원들만 의준 동무의 기관실에 따로 모였던 것이다. 나는 왜선지 마음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의준 동무가 일어났다. 평시에 것처럼 가느다란 웃음이 다정스레 담겨있던 그의 눈이 깔끔해지면서 불췌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영호동무에게 조직적인 방조를 좀 주어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배를 그저 고기배로만 보고 자신을 그 고기배의 취사원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렇겠는가? 우리 뜨랄 53호는 적어도 나라의 수산전선을 맡아나선 조국의 한 영역이란 말입니다. 영호동무로 말하자면 그 구역의 주방책임자란 말입니다.〉 의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었다. 〈그런 자각이 없다면 영호동무는 동무들을 위해 일할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sup>104)</sup>

#### 4. 排他主義 또는 敵對感

臣民型 人性의 네번째 하위유형은 排他主義 또는 敵對主義이다. 배타주의의 연원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美軍으로부터의 피해의 경험이었는데 이것이 지배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발전되면서 배타주의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배타주

104) 김성관, “나의 수기,”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 (평양: 문예출판사, 1988), pp. 271~72.

의는 앞에서 본 집단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배타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뿐만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조아 사상, 다원주의 등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포함한다.

배타주의가 신민형 人性에 속하는 이유는 배타주의 안에서는 주체사상이나 조선민족이외에 다른 민족이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知的 自律性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배이념으로 교육받은 것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민형 인간이다. 전체주의 사회일수록 배타적이기 쉬우며 그 배타성은 理性的인 것이 아니라 劃一主義的인 感情에 기인한다.

북한주민의 人性은 권위의 직속계통과 자기집단이외에는 배타주의적이고 적대주의적이다.

「보금자리」라는 단편소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주제로 한 소설로서 “30년전에 고향산에서 할아버지를 무참히 칼로 쳐 죽인 왜놈 헌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일제에 대한 강한 적대주의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sup>105)</sup>

또 단편소설 「삼륜차는 어디까지 가는가」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영예군인들이 작업장을 찾아 인민군 건설자들을 위훈·격려하는 과정에서 敵對主義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쓴 전투의지를 건설작업에 바치자”고 고무·선동하는데, 주

105) 장귀미, “까치산,”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316.

로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동의욕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원쑤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전우의 죽음을 헛되게 말라/ 구령은 내렸다  
탄우를 뚫고/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기수는 저도 모르게 웨치듯이 그 노래를 따라불렀다. 심장의 그 노래  
소리에 수천명의 건설자들이 목소리를 합쳤다.

만세 만세 만세 높이 부르며/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나가자 동무여 결전의 길로

결전의 노래를 높이 부르노라니 어제날 화선병사의 뜨거운 피가 온몸  
에 세차게 굽이친다. 오, 심장이여 불타라! 우리 심장 결전의 그날처럼  
불탈 때 못해낼 일이 그 무엇이랴.<sup>106)</sup>

다음은 단편소설 「심장의 외침」의 일부이다. 이것은 地主와 日帝 및 美國에 대한 적대감을 강도높게 표현하고 있다.

몇해전 지주놈은 윤두소를 덕준에게 주었다. 윤두소라야 제발로 견지도 못하는 병든 송아지였다. … 그 동안 병든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른다. 어찌다 생긴 한되박의 콩도 여물에 섞고 툭툭 부어오른 얼굴로 오빠를 바라 볼 때면 슬그머니 돌아서 눈굽을 훔치던 덕준이었다. … 죽은 줄로 알고 덕준에게 주었던 송아지가 살아나자 지주놈은 안달이나 며칠밤을 새웠다. 지주놈은 순사놈과 짜고들어 돈궤가 잃어졌다고 소동을 피우고는 그 루명을 덕준에게 들썩웠다. 그리고는 품

106) 조집중, “삼륜차는 어디까지 가는가,” 「청년문학」(1991.8), p. 29.



쫓대신 주겠다고 송아지를 빼앗아갔던 것이다. 불쌍한 두동생을 두고 경찰서로 끌려간 덕준은 1년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sup>107)</sup>

원썩는 바로 미제입니다. 그놈들은 남반부를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자선생들 속에는 조국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자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sup>108)</sup>

몇가지 소설의 사례만 제시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대중매체, 곧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는 일본, 미국, 남한 등의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매일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계몽성의 내용들이지만 일상적으로 되풀이 계몽을 받는 북한주민의 人性은 그렇게 이미 계몽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 5. 家族的 温情主義

북한사회 신민형 人性의 다섯째 하위유형은 가족적 온정주의이다. 가족적 온정주의가 신민형인 까닭은 가족주의는 市民社會가 미발달된 臣民社會에서 발달하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성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가 발달해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에서 집단간의 경쟁이 야기시킨 집단내부의 통합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무자비한 억압이 있

107) 김용일, “밭갈이 전야에,” 「청년문학」 (1991.3), pp. 36~37.

108) 한정남, “심장의 외침,” 「청년문학」 (1991.1), p. 20.

는 사회에서는 가족내부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면 시민사회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原初集團(primary group)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족적 온정주의가 발달하게 된 까닭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서 가정은 革命의 基地로 파악되고 있다. 1968년 3월에 개최된 女盟會議에서 ‘가정의 혁명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고 1970년 11월 개최된 제5차 당대회에서는 가정이 혁명화됨으로써 (즉 가정이 공산주의교육의 산실이 됨으로써) 분조와 작업반이 혁명화되고 인민반이 혁명화되고 나아가서 직장과 里가 혁명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가정의 혁명화는 이제 사회의 혁명화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據點으로 강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인간의 생산을 위해서 가정의 강화를 기하고 있다.<sup>109)</sup> 가정을 사회주의 혁명과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공공화하는 시책을 편 뒤 오히려 가족성원들의 정서적 유대나 감정을 더 긴밀하게 하는 잠재적 기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sup>110)</sup>

북한의 많은 소설들에서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이 매우 자주 사실로 관찰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만 들어보기로 한다.<sup>111)</sup>

109) 최홍기, “북한의 가족제도,”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397.

110) 이은숙, “여성과 가정생활,” 정무제2장관실 편 「북한여성의 실태」 (1990.9), p. 81.

맛나는 음식이 생기거나 찬이 생기는 때면 자기는 먼저 먹었다며 아들에게만 밀어놓는다. 식은 밥이나 좀 좋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담은 사발에 헛밥을 조금 얹어가지고 들어온다. … 자기도 어머니를 위하고 싶었다. 그래 자기 편에서 대접을 할라치면 언제나 막무가내였다. …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 기울이시는 어머니인가! 언제나 최우등생이 되라고 아들을 채근하며 뜰에 나와 비도 못들게 하였다. <남들이 한시간 공부하면 넌 두시간 해서라도 꼭 일등을 하여라.> 그러며 문을 달아주고는 대문밖에 나가 긴요하게 찾아오는 사람의는 누구도 들여놓지 않았다.<sup>112)</sup>

가족적 온정주의는 가족뿐만 아니라 권위의 계통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대되기도 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시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sup>113)</sup>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1. 언제나 다정한 우리 선생님  
 생일날 기쁜 날 축하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부잘하라  
 간절히 타이르는 우리 선생님

오늘은 우리노래 들어주세요  
 축하의 꽃송이 받아주세요

111) 가족적 온정주의에 관한 소설의 사례는 이은숙, “여성과 가정생활,” 정무장관실 편, 「북한여성의 실태」(1990.9); 이은숙, “가족제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을 참조할 것.

112) 리현덕, 「벼꽃」(평양: 문예출판사, 1986), pp. 51~52.

113) 림철삼, “선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문학작품집 1989」(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11.

2. 칭찬해주셔도 우리 선생님  
 꾸지람하셔도 우리 선생님  
 어머니당 받드는 기둥 되여라  
 키워주는 그 손길 따사로와요

3. 우리들 걱정으로 애태우시며  
 남몰래 지낸 밤은 얼마입니까  
 자라서 영웅돼도 박사되여도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 선생님

## 6. 受動性

북한주민의 신민형 人性의 여섯번째 하위유형은 受動性 또는 他律性이다. 臣民社會의 본질이 절대군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市民社會에서 처럼 개인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위를 선택하도록 사회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과 동원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사회화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이 북한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생산성 저하와 동기유발 위기의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集團的 競爭主義가 도입되어 있으나 개인간의 경쟁에 비하면 추진력이 미약하며 경쟁의 보수도 미미해서 의미가 적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는 노동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특별히 발달해 있고, 노동을 사

랑하는 정신을 주된 덕목으로 교양하고 있다.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을 현시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서 첫자리에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의 가장 주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울 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sup>114)</sup>

로동은 우리에게 부유한 생활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고 건실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로동과정에서 자연으로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동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될 수 있으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착취계급들의 낡은 사상 잔재들을 없애버리고 로동을 사랑하는 근로인민의 사상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sup>115)</sup>

이러한 사상교양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이 생산활동에 소극적

114) 주학석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자」(1969.1), p. 40.

115)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474~75.

이라는 증거는 북한 소설에서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단편소설 「사랑의 길」의 일부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수령님, 제가 제일 안타까운건 작업반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작업반원들을 한마음 한 뜻으로 묶어세우려고 애쓰지만 잘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칙만 너무 내세우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프다는 핑계로 일하러 나오지 않고 나오는 날에는 짝 하면 늦게 나오군하여 그렇게 지각할 바엔 무엇하러 나오는가고 지적 했더니 횡하니 치마바람을 일쿠며 들어가질 않겠습니까? 터발 가꾸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렇다는데 저는 아직 그 병을 못떼어 주었습니다.<sup>116)</sup>

단편소설 「복무자」는 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딸의 집 방문을 핑계로 작업을 기피하는 한 여성노동자의 人性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림옹화는 특별히 불일도 없으면서 휴식날 일하라는 반장의 처사에 엇드레질을 하느라고 딸네집에 잤었다.<sup>117)</sup>

한편 단편소설 「긴등별」은 농장에 배치된 운전수가 위병을 구실로 태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동료운전수들의 노력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행태를 묘사하고 있다.

창원이는 그새 위병을 구실대며 조합에 배속되지 않고 작업소에 남아 있었다. 나이로 보나 창원이 보고 책임운전수를 하라고 하자 그는 펄쩍 뛰었다. 그는 동의이를 앞세워놓고 자신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슬

116)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4), p. 11.

117) 변창률, “복무자,” 「청년문학」 (1992.1), p. 29.

술 따라가며 덕을 보려는 심산인 것 같았다.<sup>118)</sup>

다음은 단편소설 「긴 등별」의 일부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젊은 아낙네’들이 모범처녀 명숙을 따라배우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북한은 많은 젊은 아낙네들이 대체로 평소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새 일거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이상 그 일을 하던 편편 젊은 아낙네들은 팔장을 끼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일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법이 없던 이 아주머니들이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는 처녀 명숙의 모범적 행동을 보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선다. <아니 가만히 앉아서 일감을 들려주기만을 바라던 그 아주머니들이 험한 산판엘 선뜻 나섰단 말이요?> 황치국은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듯 의아한 눈매로 마누라를 바라본다. <글쎄 제먼저 신발을 끽끔 동이고 산등엘 올라가 따온 송이를 첫날에는 가내반원들에게 맛을 보라면서 골고루 나눠주질 않았겠소. 그러니 사흘째만에는 너두나두 모두 따라나섰어요. 령감은 그저 늘 영치 무거운 여편네들이니 뭐니 하면서 어금이없는 소리를 했지만 그애 몸엔 자석같은 거라도 있는지 바늘뒤에 실따르듯 그저 줄줄 달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들인 송이가 벌써 대독 하나가 차고 넘었어요.><sup>119)</sup>

지금까지 몇가지 소설의 사례에서 시사되는 대로 북한주민의 受

118) 김삼복, “긴등별,”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평양: 문예출판사, 1988), p. 243.

119) 로영철, “갈림길에 핀 꽃,” 「청년문학」(1991.7), pp. 25~28.

動性속에는 일종의 消極的 抵抗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다음 절의 일상생활형의 저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第Ⅶ章 二重의 人性과 日常生活型의 抵抗

### 1. 二重性

앞의 여섯가지 하위유형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하나의 인성 유형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二重性이다. 앞의 인성유형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내면화되었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속성인 개인주의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公的 選好(public preference)만 겉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私的 選好(private preference)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sup>120)</sup> 북한에서 공적 선호가 위장되어 있거나 잠재되

120) 개인이 정치적 불만이 있을 때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저항운동에 참여하느냐 또는 비판을 안하면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나의 갈림길에 있다. 저항운동에 참여하면서 입게되는 정치적 박해때문에 公的으로는 정부를 두둔하면서 私的으로, 즉 내심으로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선택은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와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로 나누어진다. 두개의 선호에 차이가 있는한 개인은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을 하는 것이다. 공적 선호는 혁명에 참여하면서 입게 될 외적 박해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느끼게 될 양심의 손상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적 선호는 고정되어 있지만 공적 선호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혁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

어있다는 것을 북한소설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북한소설 「먼길」의 일부이다.

〈의자맡에 쓰러져 있는 저 철부지가 내아들이란 말인가?〉 〈기다려보  
자요. 철이들면 달라지겠지요〉 안해는 남편을 위안하려 하였다. 〈듣기  
싫소. 저자식을 혁명화시킬 만한 곳을 탐문하는 중이요.〉 〈당신은엔 그  
렇게 보인단 말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동무도 견해가 잘못  
서 있소. 가정에서도 사상투쟁은 매시각마다 해야 하오. 동무부터 자  
기를 비판하란 말이요.〉 〈아니 여보, 나더러 동무동무 하면서... 그래,  
집에서 매 시각마다 사상투쟁을 하겠단 말요. 그럼 회의실도 꾸려 놓  
자요.〉 아들로 하여 어느 하루도 편한치 못한 예술가 부부였다.<sup>121)</sup>

가정을 혁명화하는 것이 공식적인 선호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는 가정에서조차 동무라는 호칭을 쓰며 사상투쟁을 한다는 것은  
심하다는 주장이다. 북한가정이 정말로 공식적으로는 가정의 혁  
명화라는 구호밑에 가정내에서조차 사상투쟁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이번에는 집단주의가 지배적인 가치체계이지만 개인들은 그 속  
에서도 개인의 안일과 가족 이기주의는 포기하기 어려운 더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시사하여 주는 단편소설 「상상봉」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한다.

---

(1) 참조.

121) 정창윤, 「먼길」 (평양: 문예출판사, 1983), p. 31; 이온죽, 「북한  
사회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8), p.173에서 재인용.

산골 오지의 개발현장에 사랑하는 딸이 근무를 자원해오자 시공과장인 아버지는 마음 속으로 딸의 고생을 너무나 안타까와 한다. ‘회고 가느다란 손매듭이며 반금 싹튼 듯한 연한 참대순 같은 몸매’를 보며, 〈저런 몸으로 힘든 이곳 근무를 자원해오다니〉 시공과장은 해종일 까 닭모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이상스럽게 느껴진다. 다른 집 아이들이 조국이 부르는 벽찬 곳으로 달려갈 때는 왜 그리도 평범하고 범상하게 여겨지는지. 정작 내 자식이 그러한 현실에 뛰어들 때는 그것이 왜 희생으로만 느껴지는 것인지...<sup>122)</sup>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금지되어 있고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업작업분조를 소재로 한 북한의 단편소설 「사랑의 길」은 분조본위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작업반 2분조장은 1분조장과 동창생이구 서로 절친한 사이인데도 글썽 분조본위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1분조에서는 모가 아직 실하지 못해서 2분조 신세를 지게되었는데 2분조장은 절대로 모를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복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와 막 욕을 했습니다.<sup>123)</sup>

다음은 단편소설 「청년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신문기자 최강문은 자신의 딸이 3대혁명 소조원으로 농장근무를 마친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체농법을 실천하기 위해 골몰하는 농장의 한 청

122) 전택철, “상상봉,” 「청년문학」 (1991.11), p. 22.

123) 강학태, “사랑의 길,” 「청년문학」 (1991.4), pp. 11~12.

년을 사랑하여 그를 돕기 위해 농장에 남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애뒀아하면서 번뇌한다. 최강문기자의 번뇌는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아, 최명심동무 말입니까? 소조사업을 끝마치고 농장에 남았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특한 동무입니다. 무슨 일이나 결심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주저없이 자기의 결심을 실천에 옮겼단 말입니다. 리기적인 그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훌륭한 딸을 가진 아버지가 말입니다.〉 최강문은 책임비서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최강문은 이번에 딸애를 만나 사연을 알아보고 설복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 딸이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딸을 상봉하면서도 최강문기자는 고생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뒀은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싶게 표현할 수도 없었다. 땅새에 폭절은 들맹이 처럼 단단해진 딸이 아버지의 품에 왈카안겨들었다. 〈잘 있었으나?〉 〈이것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농사일이라는게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 … 애가 무슨 용단으로 이곳 농장청년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을까?〉(팔호안-필자)<sup>124)</sup>

부부간에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아내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남편사이의 갈등을 통해 사회적 이중가치구조를 드러내주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단편소설 「사랑과 언약」에서 정실의 남편 황영수는 공장수리공으로 일하다가 당의 추천으로 대학에 진학한다. 공장을 떠

124) 김금옥, “청년들,” 「청년문학」 (1991.5), pp. 16~18.

나면서 황영수는 정실과 전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나 황영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공장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평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으로 배치를 받는다. 인민대학습당은 평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직장으로 선망하는 곳이다. 황영수가 대학으로 공부하러 떠날 때 보였던 公的 選好와 일치하는 태도와는 달리 그의 私的 選好는 평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 남편 황영수가 대학에 가기 전에 다니던 공장으로 되돌아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아내로부터 추궁을 받는 대목을 보자.

〈그런데 배치받을 때 여기로 오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 영수는 선뜻 대답을 못했다. 그것은 그가 전혀 그런 소리를 비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실의 짐작을 더욱 굳어지게 해주었다. 그러니 남편이 인민대학습당에 배치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설마 하고 바라던 기대가 허물어지는 데서 오는 허탈감이 몰쓸어들면서 온몸의 힘이 깡그리 빼앗아가는 듯했다. 아내는 황영수가 전에 다니던 공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완강하게 주장한다. 〈전들 왜 수도에 가서 살고 싶지 않겠나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구 자기 하나 편안하겠다고 훌쩍 떠난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으며 누구든지 그 욕망의 노예로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벌써 그 인간이 노예로 돼가는 과정일 것이었다. 〈아니, 난 그래선 안돼.〉 이튿날도 또 그 다음날도 깊은 생각끝에 이런 말을 반복하였다. 결국 아내의 뜻대로 남편은 평양으로 가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다니던 공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sup>125)</sup>

125) 이정수, “사랑과 언약,” 『청년문학』 (1990.12), pp. 19~24.

다음의 단편소설 「삶의 자격」의 일부이다. 이 소설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個人的 出世를 해야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주인공의 ‘삼촌’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주민의 이중적 인성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郡經營委員會 간부로 일하는 주인공의 삼촌은 조국애 또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주인공의 삼촌은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주인공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형님! 그래도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사내 녀석인데 공부 시켜야 할 게 아니요?〉 〈공부? 왜?〉 〈아 참, 이런... 아무 자격이래두 있어야지. 당장 일부러 시키겠소? 지금이야 대학졸업증 없이 어디에 가서 제구실을 하는줄 아오?〉 단순한 사회물계도 모르는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삼촌은 넥타이를 늦춰놓았다. 〈흥, 대학간판? 그게 무엇에 필요한거냐? 대학졸업증이 왜 있어야 하는가 말이다.〉 〈형님은 지내 단순한게 탈이예요. 생활이야 어디 그렇소?〉<sup>126)</sup>

105층 류경호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여성돌격대원들의 이야기인 단편소설 「여성소대」에서도 이중적 인성구조를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한 당간부의 딸이 자기가 그곳에 오게 된 사연을 말한다. 그녀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공장에서 일하던 수리공이 청년돌격대에 가기 싫어서 위병을 핑계로 신체검사에서 빠져나가는 二重性을 발견한다. 그 수리공은 대학에 가려는 꿈을 가지고 청년돌격대에서 빠지려고 한다.

126)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 (1990.10), pp. 28~35.

〈나와 한작업반에서 일하던 수리공 동무가 사로청모임에서 추천되었어요. 그는 나보다 두살이나 우었는데 발전성이 있고 똑똑해서 공장일군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위병이 있어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었지요. 그 위병이 돌격대에 가기 싫은 그의 구실로 되었다는 건 나만이 아는 비밀이었어요. 나는 수첩에 그를 비웃는 풍자시를 썼어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사로청회의에서 그를 비판했어요.〉 그의 뺨에 발그레 홍조가 비졌다. 〈대학입학을 꿈꾸는 그의 마음을 모르는 내가 아니지만 나는 스쳐버릴 수 없었어요. 죄다 까박혔는데 글썽 갑자기 왕청같은 질문이 날아오지 않겠어요. 〈좋다, 동무는 가라면 가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동무는 간부의 자식이니 까 속이 든든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나는 그의 혐오스러운 물음에 랭소를 던졌어요. 〈내가 가겠어요. 이게 내 대답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말할 것은 이자 동무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전체 종업원들 앞에서 사죄하라고.〉 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sup>127)</sup>

단편소설 「대들보」에서도 몸이 약한 딸을 청년돌격대에 보내면서 公的 選好와 私的 選好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장지배인 오광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일상적인 삶속의 이중적 人性을 관찰할 수 있다. 지배인은 피붙이인 딸을 보내기가 안스럽지만 자기의 얼굴(체면)을 봐서 1년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

어느날 오광림은 딸애를 조용히 사무실에 불러들이었다. 어머니를 닮아 체소한 몸에 성미 또한 그대로 박꽃 같았다. 년중 내내 햇볕 한번 받아보지 못한 희고 연한 살갓과 길고 가늘기만 한 팔, 아직도 아버지의 보호 ‘우산’ 없이는 기실 제발로 살아갈 수 없이 연약한 딸애였다. 오래 동안 딸애를 세워놓고 즈저리기만 하던 오광림은 끝내 누구에게

127) 김경실, “여성소대,” 「청년문학」 (1990.8), pp. 41~43.

도 하소할 수 없었던 마음속 고뇌를 딸앞에 털어놓고 말았다. <어찌겠니. 네가 아버지를 좀 도와다오. 지금 온 나라의 청년들이 다 당의 부름을 받구 대건설장에 달려가질 않니. 그런데 지배인의 자식이라구 해서 너만은 공장에 그냥 남아 있어서야 되겠니. 너 때문에 아버진 일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널 홀렁 학교에 보낼 수도 없지않니. 그러니 칼에 맞아도 큰칼에 맞으랬다구 소문이 자자한 큼직한 건설장에 가서 한 1년을 꼭참고 견디어라. 그러느라면 알도리 있을게다.><sup>128)</sup>

위에서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대로 북한주민의 人性은 二重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억압이 강한 권위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전략이자 결과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 日常生活型의 抵抗

앞에서 우리는 북한사회에 인간개조라는 지배자의 의도가 피지배자에 완벽히 수용되어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북한과 같은 사회가 이러하다면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아베 크롬비(Abercrombie) 등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세 봉건주의도 현대 자본주의도 지배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 내면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배이데올로기이론을 비판했다.<sup>129)</sup>

128) 원종주, “대들보,” 『청년문학』 (1990.2), pp. 31~32.

129)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p. 3.



아베크롬비(Abercrombie) 등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배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었으며, 지배이데올로기는 실제로 지배이데올로기론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에 의하여 침투(penetration)당하기 쉽다.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못하며 또 그 지배이데올로기는 피지배자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이한 이해는 사람마다 일상적 경험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더욱 발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도 피지배자는 사유하는 정신능력이 있는 인간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느 사회나 지배자의 무기가 있으면 피지배자의 무기도 있게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처럼 市民社會가 발달해 있으면 수많은 自發的 結社體(grass roots association)들이 성장하여 지배층에 대항하여 집합행동이나 공개적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억압적 사회일수록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open defiance)은 무모한 짓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日常生活型의 抵抗(everyday forms of resistance), 消極的 抵抗(passive resistance)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을 제임스 스카트(James Scott)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라고 지칭했다.<sup>130)</sup>

日常生活型의 抵抗이란 피지배자들이 지배자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로보트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저항하는 것이다. 즉, 일하면서도 일부러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無知한 체 하기, 시치미 떼기, 줌도 독질하기, 비방하기, 사보타지 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은 인도의 카스트제도하에서 하층민들이 사용했고<sup>131)</sup> 남북전쟁이전에 미국의 남부 흑인들이 사용하던 저항의 형태이다.<sup>132)</sup> 이러한 저항은 소수의 영웅적 지도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공개적인 무장봉기보다 훨씬 많은 저항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허용되지 않고 정치체제가 억압적인 사회일수록 최소한의 저항의 형태인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북한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형의 저항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消極的 人性’ 및 ‘二重의 人性’의 절에서 많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사례만

130)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131) Edward B. Harper, "Social Consequences of an Unsuccessful Low Caste Movement," *Social Mobility in the Caste System in India; An Interdisciplinary Symposium*, ed. James Silverberg, Supplement No. 3,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The Hague: Mouton, 1968), pp. 48~49.

132)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p. 34.

제시하고자 한다.

개개의 인간들을 따져보면 하나같이 제구실을 할 사람들인데도 엇서기를 잘하고 웬간해서는 분조장의 지시가 먹어들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 분조장의 얼굴에 주름살이 퍼질새 없었다. 오죽이나 골머리를 앓았으면 ‘흐린하늘’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겠는가.<sup>133)</sup>

나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작업도구였다. 곡괭일 메고 나왔어야 할 그의 어깨에는 녀가래가 얹혀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심사가 비뚤어졌다 한들 첫 작업분공까지 어기다니. 나에게서는 그의 행동거지가 새 분조장에 대한 말없는 도전처럼 느껴졌다. 나는 삼녀가 가끔 뿔난 언행으로 말밥에 오르군한다는 것을 전부터 들어왔으나 첫날부터 이럴줄은 몰랐다. 만사가 다 귀찮다는 건가?<sup>134)</sup>

광춘이는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해서 내가 내려갈 때 병원엘 간다고 같이 갔고 창흡이는 그보다 먼저 할머니 3년제사라고 갔는데 둘다 아직 안왔다는 것이다. 뺨이 울끈하였다. <잘한다. 3년제사라는건 3년동안 하는 제사인가? 그리고 밥을 두그릇씩 팡팡 조겨넣어두 흠뻑하지 않는 배는 어디가 고장난 건가?><sup>135)</sup>

133) 변창률, “첫 메아리,” 『청년문학』 (1991.1), p. 23.

134) *Ibid.*, p. 38.

135) 한인준, “깊은 산속에서,” 『청년문학』 (1991.6), p. 13.

## 第 VIII 章 集團別 人性의 變異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人性의 유형은 북한주민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人性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집단에게 똑같은 정도나 양식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개개인에게는 이중성의 人性이 있듯이 사회전체의 수준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존재한다. 집단별 人性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階級別 차이, 世代間의 차이가 주된 變異로 보인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개조리론」은 노동계급, 농민, 인테리, 청소년의 집단별 범주로 나누어 사상성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러한 계급별 차이 및 세대간의 차이는 집단별로 개개인의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 史的唯物論의 관점에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명제가 여기에서 적절히 적용된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에게는 위에서 살펴본 신민형 人性들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대로 “로동계급이 가장 선진적 계급이며 혁명의 령도계급”<sup>136)</sup>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물질적 사상적 통제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주로 도시지역 공장에서 중앙의 ‘절대군주적’ 정치의 통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또 가장 집단적인 조건속에서 일하

136)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p. 104.

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신민형 人性的 하위유형의 전형을 家臣主義, 權威主義, 集團主義, 受動性이라고 볼 때 노동계급이 가장 그러한 전형에 가깝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북한사회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도 노동계급이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복종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이 있다.<sup>137)</sup>

그런데 노동계급중에서도 개인간에 變異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노동계급 가운데는 지난날 큰 제철소나 제강소에서 일하면서 집단적인 생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노동이나 계절노동을 한 사람도 있다. 또한 노동계급중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노동계급 대열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sup>138)</sup>

북한에서 농민계급은 노동계급만큼 집단주의나 복종주의로 개조된 것 같지는 않다. 농민은 오랫동안 私的所有의 울타리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의 ‘낯은’ 잔재가 많아 共同經理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농민들은 오랫동안 자기땅을 가지고 있었거나 땅이 없었다 해도 집, 농기구 등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일하여 왔다. 오랫동안 사적 소유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살아온 농민들은 ‘혁명성과 조직성’이

137) Leonard I. Pearlin and Melvin Kohn, "Social Class, Occupation, and Parental Values: a cross-nation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XI (August 1966), p. 477.

138)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p. 107.

높지 못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보수주의 등 사상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139)</sup> 북한을 방문한 재미언론인에게 북한의 한 간부가 농민은 집단주의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도 공동노동보다 자기 터밭에 더 신경을 쓰는 이기주의가 남아있고 농민이 갖는 특유의 보수성과 소유의식이 집단주의의 길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sup>140)</sup>

또한 전통적인 소유의 영향뿐 아니라 농민은 象徴的 권력의 制度的 계통으로부터 멀리있다. 농민은 헤게모니 기관들이 있는 도시가 아닌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기구의 영향력이 적다. 고유의 문화적 전통, 민간종교, 민간의식, 민간풍습속에 살고 있어서 농민은 지배적 사상에 덜 지배당해 있다.<sup>141)</sup> 농민의 노동에 대한 통제메카니즘도 노동계급과는 다르다. 공장에서는 매일매일 노동의 결과를 제때에 평가할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농업에서는 한해 농사를 다지은 다음에야 노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sup>142)</sup>

인테리는 가신주의, 집단주의, 복종주의 등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典型的 人性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교육받았고 부르조아 사상의 영향도 비교적 많이 받은 인테리는 물론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란 새 인테리들도 생산활동

139) *Ibid.*, p. 117.

140) 「한겨레신문」, 1991. 6. 9.

141)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p. 321.

142)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p. 119.

과 떨어져 주로 개별적으로 정신활동을 하는 직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며 사상수양에 힘쓰지 않으면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43)</sup>

「청년문학」이라는 북한의 문학잡지에 나오는 단편소설의 많은 경우가 인테리 집단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제대병사」라는 한 단편소설은 育種學을 전공하는 한 여자 연구사의 개인주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직업의 위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불도젤 운전수인 제대병사가 대학생인 여자애인과 갈등하는 내용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이다.

나는 내가 하는 불도젤운전이 천하다거나 하치않다거나 값없다고 생각해본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한 그 처녀처럼 유식한 대화를 한다거나 감정의 섬세한 구석을 끌어내어 이러저러하게 에둘러서 이야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대신 나의 이야기에는 투박하고 직선적인 만큼 진실하고 소박한 것이 있었지요. 그 동무는 나의 이런 점을 유치하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그 녀자의 불만이 커지더군요. <동무는 이상해요. 우리 동창생들을 보라요. 모두들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어느기업소 지도원쯤이야 해야 하지 않아요. 군사복무를 하고서두... > 이쯤까지 이르렀습니다. 참기가 막힌 일이더군요. 그 동무는 마치 군사복무를 한 것이 그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인듯이 인식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크를 몰고 대소한 추위속에서 원썩을 짓부시는 훈련을 할 때 조국에 바치는 성스러운 충성심이 없었다면, 훗날 그 대가를 조국앞에서 받기 위함이였다면 우리는 그런 곤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기가 그 동무

143) *Ibid.*, p. 127.

들은 내가 군사복무를 하는 동안에 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껏 제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겨우 노동자란 말입니다. 나도 잘못 생각하면 그 동무처럼 되고 말지요. 하지만 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과 많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대 병사인 불도젤운전수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애인을 만났다. 그러나 그 애인은 자신의 애인이 불도젤운전수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 나는 그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러워 멈춰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선 생각할 사이도 없이 늘 하는 말투로 농기계작업소에 갔다와주어야겠다고 말했지요. 그는 대답을 안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꾸물거리기만 하더니 나를 길옆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걸어가던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은 우리 대학교원들과 연구생들이예요. 난 정말 얼굴을 못들겠어요. 왜 그렇게 눈치없이 처신하세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가지 않았습다. 그는 나의 곤경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습니다. 리해는 커녕 기름투성이 불도젤운전수 애인이 나타난 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동무의 이러저러한 나약성이 집중되어 나타난 문제이지요. 그는 희망대로 고지대분원에 연구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원에서 이곳 개간지에 새로 나오게 되는 시험장에다 그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분원에서 나왔으면 나왔지 개간시험장엔 죽어도 못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살기도 좋고 연구사업에서도 편리한 분원연구실에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팔호안-필자).<sup>144)</sup>

인테리는 또 공동체의 일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며 일반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 「우리 이웃들」의 예를 보기로 한다. 미숙이는 경제대학을 졸업한 여자인데 가

144) 정승일, “제대병사,” 「청년문학」 (1991.4), pp. 42~43.



끼이에 있는 협동농장의 부기로 일하고 있고, 그의 남편 박상로는 새로운 ‘동약재’ 연구를 위해 이 지방에 내려온 의학연구사이다. 이들 인테리부부는 이웃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웃들의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동네 이웃들의 태도는 냉소적이다.

〈미숙이가 왜 안보이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학을 졸업한 경제사가 우리같이 수준낮은 여자들과 상대나 돼야지요.〉 (미숙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자 인민반장 세영이 미숙의 집을 찾아간다. 미숙의 집 문을 두드리며 모임에 나오라고 말하자 미숙이 과학자인 남편의 잠을 깨운다고 짜증을 낸다. 그러한 미숙의 태도에 대해 인민반장 세영은 이렇게 생각한다.) 순간 세영은 미숙이가 과학자인 제 집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끼었다. 확실히 미숙이는 인민반일은 집에서 놓고있는 아낙네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있는것 같다.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과학자네 뒤마당이나 매번 쓸어줘야지 할 일이 있나 뭐.〉 세영이는 토라진 목소리로 미숙이를 한바탕 시까르고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횡하니 가버렸다(괄호안-필자).<sup>145)</sup>

청소년집단은 인테리 못지 않게 사상적으로 일탈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 등 새세대 중에는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고 비판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제국주의의 압박도 지주, 자본가의 착취도 받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혁명의식과 계급의식’<sup>146)</sup>이 부족하다는 것이다.<sup>147)</sup>

145) 김금숙, “우리 이웃들,” 「청년문학」 (1990.3), pp. 10~11.

146) 여기서는 집단주의, 전체주의, 복종주의 등을 의미함.

147)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p. 136.

## 第 IX 章 結 論

집단간에 약간의 變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상생활형의 受動的 抵抗(passive resistanc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사회구조하에서 북한주민의 人性은 대체로 위에서 지적한 家臣主義, 集團主義, 全體主義, 服從主義 등의 人性 유형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人性 유형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臣民型 人性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臣民社會에서 지배적인 人性 유형이다. 臣民이란 절대군주의 신하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가신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복종주의, 체념적인 수동성 등이 신민형 人性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신민형 人性은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주체적, 자주적 인간관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체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이라는 데서 자주적이라고 주장한다.

주체시대에 와서 지난날 착취와 압박 밑에 있던 인민대중은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 역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했다는 것이다.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이 역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 새로운 역사변혁의 시대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

의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이며 력사와 자기운명을 자기손으로 개척해 나가며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라는 것이다.<sup>148)</sup>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人民大衆의 개념이다. 인민대중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다. 생활하는 것은 개별적 사람이지만 그 생활은 사회적 집단속에서 진행된다”<sup>149)</sup>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集團的 市民權(collective citizenship)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수령론 때문에 모순적이다. 더욱이 시민권(citizenship)을 국가, 사회, 개인의 관계의 역학관계에서 볼 때는 북한의 주체적, 자주적, 자율성의 개념은 虛構的 概念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人性은 主體的이라기 보다는 그 반대인 臣民的이다.

북한의 이러한 人性은 여타 사회주의 사회의 人性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앞에서 신민사회의 이념형에서 살펴본 대로 여타 사회주의도 북한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민형 사회이기 때문에 신민형 人性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외부정보에 대한 정책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人性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동구 사회주의 사회와

148) 강민구,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9.4), p. 55.

149) *Ibid.*, p. 56.

구소련은 유교적 전통이 없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절대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철저하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신민형 人性은 여타 사회주의의 신민형 보다 훨씬 뚜렷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人性은 남한의 人性과 어떻게 다른가? 더 구체적인 비교 연구가 행해져야 하겠지만 대체로 보아서 한국은 市民社會로 특징지어지고 북한사회는 臣民社會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보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공유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人性에서도 유사점도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유교적 전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家臣主義, 權威主義, 集團主義 및 家族的 溫情主義와 같은 人性의 유사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분단 이후 개방화되었기 때문에 서구적 영향에 유교적 전통이 많이 희석되었고 민주주의적 정치문화 때문에 북한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신민형 人性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신민형 人性은 저항적이지 않고 순종적이라는 의미에서 사회 통합에 매우 효과적인 人性이며 따라서 외부적·내부적 도전이 있어도 체제고수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최근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밀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여 붕괴되고 심지어 중국에서 마저도 1989년에 천안문사태와 같은 밀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했어도 북한은 여전히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매우 긴 시간동안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신민형 人性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신민형 人性이 북한주민들에게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의 이면에는 그것과 다른 또 하나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선호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二重性은 비록 조직화된 저항으로는 발전하지 못해도 일상생활형의 저항으로 잠재해 있다. 이러한 二重的 人性은 최근에 와서 점차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幻影的(illusory)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피지배자가 순종한다.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幻影이다. 과거 50년대 후반 60년대에는 고속성장이라는 물적토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물적토대가 침체되어가고 있다. 아베크롬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피지배계급을 묵종하게 하는 요인이 피지배자의 묵종에 대해 지배자가 제공하는 물적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묵종과 그에 대한 보상은 이데올로기적 조작만으로는 미약하다. 계급사회의 안정은 이데올로기적 응집이나 가치합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보상이다.<sup>150)</sup> 물적 토대가 더욱 악화되고 외부의 정보통제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면 신민형 人性의 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이중성이 표면적인 저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

150)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0), p. 3.

련과 동구에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한 것은 臣民社會의 人性을 넘어 市民社會의 人性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라면 북한에서 臣民型 人性이 市民型 人性으로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미약하나마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인민대중이 철저하게 臣民化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중적 人性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인테리 계급으로 불리어지는 新中間階級의 성장이다. 북한에서 인테리 계급은 신민형 人性의 굴레를 가장 약하게 쓰고 있는 계급이다.